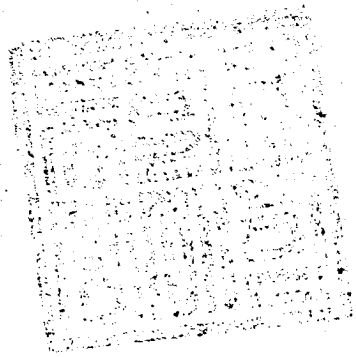
3611
348.11

Ⅰ.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査研究의 일환으로 翻譯되었음.

Ⅱ. 收録된 内容은 刊行処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関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北韓의 対外政策과 政治変化



國土統一院 調査研究室

(第一研究官室)

解　　說

本 冊子는 北韓의 對外政策 關聯 論文 2編과 對內政治關係 論文 1編 등 總 3編의 論文을 한데 엮어서 「北韓의 對外政策과 政治變化」라는 題目으로 編輯한 것이다. 그 構成은 3部로 되어 있다.

第1部와 第2部의 論文은 1981年2月23日부터 2月28日까지 美國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나라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와 캘리포니아大學校 버클리分校의 東亞細亞問題研究所가 共同으로 主催한 「北韓에 關한 會議」에서 發表되었던 論文中에 우리의 관심을 크게 끌수 있었던 두편의 論文을 번역하여 실은 것이다. 第1部는 자골리아敎授(Donald S.Zagoria)의 「北韓은 第2의 아프카니스탄이 될 것인가?」(North Korea : Another Afghanistan?)이며 第2部는 스칼라피노敎授(Robert A.Scalapino)의 「北韓의 對日 및 對美關係」(North Korean Relations with Japan and The United States)이다.

第3部는 日本의 「朝鮮研究所」에서 刊行되는 「朝鮮研究」 82年 5月號에 佐藤勝巳가 쓴 「北朝鮮의 政變 — 金正日이 副主席에 就任하지 못한 意味 —」(pp.40～58)이다.

以上의 3編의 論文은 北韓狀況을 모두 外國人이 分析研究한 結果라는 點에서 韓半島를 生活의 뿌리로 하고 있는 韓國人의 특수한 立場에서 韓半島를 分析해야 한다는 관점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

머지 主觀과 편견으로 빠질 判斷의 過誤를 照明해 볼 수 있는 거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北韓研究에 玆하는 本 資料가 널리 그리고 깊게 검토되어 有用해지기를 빌어마지 않는다.

1982年 6月 10日

차 례

第 1 部 : 北韓은 第2의 아프카니스탄이 될 것인가?
(도날드 자골리아) 5

第 2 部 : 北韓의 對日 및 對美關係
(로버트 스칼라피노) 53

第 3 部 : 「北朝鮮의 政變」 — 金正日이 副主席에 就任하지 못한 意味 (佐藤勝巳) 91

第1部 : 北韓은 第2의 아프가니스탄이 될것인가?

도 날 드 S · 자 고 리 아
(美 Hunt 大學校 教授)

"오늘날 國際舞臺에서는 勢力圈 爭奪을 爲한 列強들 사이의 對立과 衝突이 날로 激化되어 가고 있읍니다.

歷史는 列強들이 勢力圈을 넓히기 爲한 싸움을 벌릴때마다 그 過程에 작은 나라들이 利益을 侵害당하고 犧牲物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읍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에 利害關係가 복잡하게 엉키고 列強들 사이에 軍事的 對決이 날로 激化되고 있는 때에 우리나라가 統一을 이룩하지 못하고 계속 北과 南으로 갈라진 狀態로 있게 된다면, 우리 民族은 또 다시 外勢의 犧牲物로 植民地 奴隸로 될 수 있읍니다.

우리의 外部列強의 利害關係에 따라 나라와 民族의 運命이 농락당하고 우리 겨레가 亡國奴의 生活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지난날의 가슴 아픈 歷史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하며, 그러자면 갈라진 祖國을 하루 빨리 統一하여야 합니다."

..... 中 略 .....

"帝國主義를 비롯한 온갖 支配勢力들은 民族的 獨立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人民들의 鬪爭을 抹殺하기 爲하여 新興勢力 나라들에 대한 武力干涉과 情報 破壞活動을 끊임없이 감행하고 있으며....."

"支配勢力들은 新生獨立國家들을 다시 隷屬시켜 自己들의 支配圈안에 들여놓기 爲한 爭奪戰을 더욱 強化하고 있읍니다."

— 1980年 10月 10日 北韓 勞動党 第6次 大會에서 行한 金日成의 事業 總和報告中 一部 —

序　　言

本 論文에서 展開될 主要한 論點은 北韓이 1980年代에 第2의 아프카니스탄이 될 可能性 즉 北韓이 蘇聯에게 獨立性을 상실하거나 또는 점차적인 對蘇依存의 增大로 인해 獨自的인 對外政策의 遂行能力을 상실할 可能性이 存在한다는 것이다. 本 論文을 읽는 사람들이 이 論議가 과장된 豫測이라고 생각할 우려가 있어서 本人은 앞 표지에 勞動党 第6次 大會에서의 金日成의 演說에서 약간의 引用을 실었다. 金日成의 그 주목할 만한 演說에서는 그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引用들은 本人의 관심이 단순한 個人으로서 보다는 北韓當局의 最高權威者로서의 金日成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몇개의 可能한 시나리오들이 있다. 먼저 中·蘇戰爭이 北韓을 심각한 危險속에 빠트릴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中共과 蘇聯은 모두 北韓과 國境을 접하고 있는 한편 그곳에 決定的인 安保的 利害關係를 갖고 있다. 北韓은 中共에 있어서 滿洲의 産業中央部門에 관건이 되고 있으며 蘇聯에게는 연해주지방과 蘇聯太平洋艦隊의 重要港口인 블라디보스토크港口에 매우 近接해 있기 때문에 치명적 位置에 있다. 中·蘇戰爭의 경우에 양쪽 모두 타방이 北韓에 진주하여 軍事基地로 轉換시키는 것을 막기 위하여 北韓에 진주하기를 원할 것이다. 蘇聯과 中共은 모두 平壤과 安保條約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 條約에 根據해서 軍事介入을 正當化할 수 있으며 어

느쪽이든지 일단 北韓에 진주하면 조만간에 撤收할 것 같지는 않다.

둘째로 中共의 對美關係 正常化 때문에 점차 中共에 환멸을 느낀 北韓은 蘇聯에 대한 두려움이 더해가면서도 달리 代案이 없기 때문에 모스크바에 依存하고 더욱 密着하게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蘇聯 侵攻의 불과 몇달후에 平壤이 아프카니스탄의 바브라크 傀儡政府를 承認한 것은 北韓의 對蘇 柔化態度의 增大를 意味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北韓은 韓國과의 軍事的 및 經濟的 競爭에서 점차 지고 있다는 것을 認識함에 따라 外部의 經濟的 및 軍事的 援助에 더욱 依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北韓에게 있어 蘇聯은 先進軍事裝備 및 先進技術을 提供할 수 있는 유일 可能한 원천이다. 한편 蘇聯은 北韓에게 만약 그들이 이 援助에 接近하려면 政治的 代價를 支拂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하게 하여 왔다고 믿어진다.

세째로 金日成 死後에 發生할 것으로 豫想되는 一連의 위기에서 蘇聯은 北韓 리더쉽의 分裂을 利用할 전연 새로운 기회가 있게 될지도 모른다. 그때에 北韓의 党內部에서는 平壤의 對內外政策의 앞으로의 方向에 관한 論爭이 불가피할 것이며 蘇聯은 하노이에서와 똑같이 平壤에서도 최고입찰자임이 判明될 것이다.

本 論文이 뒤에서 論證하는 것처럼 北韓의 對中共關係는 이미 過去 2年동안 상당한 緊張下에 存續되어 왔으나 한편으로 蘇聯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큰 成果 없이 계속 추파를 보내어 왔다. 누

구나. 蘇聯은 北韓이 지금까지 支拂하려고 마음먹은 것보다 훨씬 무리한 條件을 堅持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蘇聯의 平壤에 대한 圧力은 增大되지 않을 수 없으며 北韓이 1980年代에 모스크바로 점차 "傾斜"하게 됨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뒤에서 指摘할 理由들 때문에 本人은 이것이야말로 매우 걱정스러운 事態라고 믿는다. 또한 結論的으로 本人은 왜 韓國과 日本을 包含한 西方이 北韓의 모스크바"傾斜"를 저지하는데 共通의 利益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그러한 "傾斜"가 저지될 수 있는가에 관한 약간의 암시를 提供하려고 한다.

本 論文의 첫장은 中共, 蘇聯 및 北韓의 이른바 北方 3角關係의 歷史를 특히 最近의 2年동안의 展開에 유의하면서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장에서는 急變하는 大國 紐帶關係에 비추어 그 三角關係에 作用하는 動的要因과 특히 세 當事局의 利益과 動機에 대한 分析을 試圖하며 마지막 장에서는 西方의 利益에 관한 약간의 考察로 終結코자 한다.

北韓의 對中·蘇關係의 裏面의 深層部를 探索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위 "蘇聯學"(Kremlinology)이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執着할 必要가 있다. 다행하게도 이러한 試圖는 過去처럼 신비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한 試圖는 西方學者들의 수많은 研究에서 實行되어 왔으며 確實히 때때로 濫用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찰자의 無能때문에 통찰을 간과할 수는 없다. 國際共産主義 關係의 우여곡

절을 把握하고자 하는 專門家는 共産主義 媒體의 진정한 意味를 把握하려는 試圖가 매우 必要하며, 共産主義國家들이 지금과 같이 閉鎖的으로 存續하는 한 그러한 試圖는 계속 使用될 것이다. 그러나 "蘇聯學"은 단순히 研究技法인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 蘇聯學은 共産主義 党들간의 關係에서 發生하는 일에 대한 실마리를 提供할 수 있지만 分析을 대신할 수는 없다. 다른 한편 蘇聯學的 立證의 견고한 土臺에 의지하지 않은 分析은 잘해야 限界를 지닌 것이 되고 잘못하면 誤謬를 범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本人은 蘇聯學的 立證 혹은 最近의 中共, 蘇聯 및 平壤의 北方 3角關係의 우여곡절의 규명을 試圖하였었다고 主張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主題에 관한 情報의 金鉱이 다행히도 存在한다. 그것은 Foreign Broadcast Information Service 주관으로 發刊되는 Trends in Communist Media인데 美商務省의 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에서 發刊한지 6個月後에야 利用할 수 있다. 만약 FBIS 分析者들의 蘇聯, 中共 및 北韓의 媒體에 관한 愼重한 週日마다의 研究가 없었더라면 本 論文을 쓰는 것은 不可能하였을 것이다.

第1節 北方3角關係의 展開
(The Evolution of The Triangle)

3角關係 存續의 最初의 10年에 관해서 보면 北韓은 蘇聯에 의해서 철저하게 植民地化 되어있었다. 韓國動乱동안에 노획된 記録들을 研究한 美 國務省調査団은 1951年에 北韓은 "이미 소비에트의 한 聯邦化에로 상당히 잘 진척되었다"고 結論지었다.[1] 北韓의 党과 政府는 第2次大戦 終葉 滿洲로부터 짓쳐 들어온 蘇聯 赤軍과 함께 歸國한 소비에트 韓國人 무리들의 支援속에 스탈린의 統制를 전반적으로 받게 되었다. 日本에 對抗해서 시베리아에서 붉은軍隊와 함께 싸웠던 그 소비에트 韓國人들 및 金日成과 같은 小數 滿洲韓國人들은 党, 軍 및 요직에 任命되었으며 그들은 蘇聯顧問, KGB 및 蘇聯大使館의 細密한 監視를 받았다. 戦前에 祖國에서 實質的인 大衆的 基盤을 構築하였던 國内 韓國人 共産主義들과는 달리 이들 소비에트 韓國人들은 國内的으로 權力基盤이 없었고 또한 그들 대부분은 그들이 支配하려고 하는 北韓 住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蘇聯의 支援에 絶對的으로 依存하기만 하였다. 그들중 많은 사람은 戦前에는 蘇聯官吏였으며 蘇聯의 中央아시아에 居住하는 커다란 韓人小數 居留民団의 一部이었다.

1948年 蘇聯軍隊가 撤收한 以後에도 蘇聯의 政治顧問들은 계속

하여 北韓의 각 長官들과 함께 基本政策決定을 修正하였다. 몇몇 赤軍 將軍들은 國防相을 도왔고 蘇聯大使館의 면밀한 監視속에 蘇聯系 韓國人들은 党組織과 充員을 指揮 監督하였고 일부 師団 및 聯隊를 統率하였으며 秘密警察을 指揮하였다.[2)]

그들의 政治的 支配를 保障하기 위하여 蘇聯은 第2次世界大戰의 後半期동안 中國大陸을 本據地로 하다가 歸國한 延安派들의 北韓 党內에서의 役割을 減少시키기로 결심했던 것 같다. 비록 이 集団은 나중에 1950年代 中盤에는 北韓의 党內部에서 상당한 수를 점하게 되었지만 蘇聯 占領當局은 金日成을 支援하였으며 소비에트 韓國人들은 延安派를 權力의 자리에서 밀어내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蘇聯은 延安派를 "信賴할 수 없으며" 中共의 徒党들로 看做하였다. 延安派의 軍事指導者 "武亭"은 1949年 勞動党(KWP) 大會에서 党內에서의 派閥構築을 試圖한 理由로 批判되었으며, 또한 延安派의 政治指導者 김두봉은 同年에 指導層에서 逐出되었다.

蘇聯은 中國 共産主義者들이 1949年10月 權力을 掌握한 以後 혹은 韓國動乱 以前에 조차도 北韓에서의 中共 影響力이 심대한 擴張을 沮止하기 위하여 애써 왔으며 이러한 사실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1949年10月 以後에 北韓은 中共과 즉시 大使를 交換하지 못했다. 그때까지도 時期를 기다려야만 하였다. 또한 北韓은 中共과 어떠한 公式的 條約도 協議하지 못했으며 1953年까지 두 國家間에 어떠한 經濟的 혹은 文化的 協定조차 없었다.

스탈린은 그의 北韓 駐屯軍隊를 통해 北韓을 단순히 政治的으로

統制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北韓經濟를 蘇聯의 매일매일의 投入에 철저하게 依存케 하여 그 投入이 없으면 可能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北韓經濟를 韓半島와 접한 蘇聯 極東地域의 經濟에 統合시키려고 힘썼다. 그리하여 北韓의 重工業과 鉱物生産의 擴大는 均衡經濟의 發展이 아닌 蘇聯의 必要에 呼應하는 方向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위하여 北韓에 있는 蘇聯當局은 北韓의 投資의 方向을 計劃하고 對外貿易을 指揮하는데 指導的 役割을 遂行하였다.[4] 北韓의 貿易은 거의 排他的으로 蘇聯에 편중되었는 바 1950年까지 蘇聯과의 交易은 全體 對外貿易의 4분지 3 以上을 차지하였다.

同時에 北韓의 武裝軍隊는 거의 철저하게 蘇聯에서 輸入된 兵器, 弾薬, 가솔린, 裝備 및 豫備附屬品에 依存하도록 되었으며, 1950年朝·蘇交易의 약 3분지 1은 軍事用品이었다.

文化分野에서는 러시아化하려는 努力이 있었다. 國民學校 5學年以上에게는 러시아語 공부가 義務的으로 되었으며 北韓 指導層사이에 러시아어 공부를 促進하기 위해 엄격한 努力이 이루어졌고 러시아映画와 演劇은 北韓의 映画舘과 劇場에서 인기가 있었다.

蘇聯에 의해서 北韓에 強要된 이러한 植民地式의 편성은 金日成과 그의 滿洲 빨치산 일당에게 커다란 不滿의 根源이 되었음에 틀림이 없다. 金日成의 甲山派는 무엇보다도 "朝鮮"을 植民主義로부터 解放시키기 위해 抗日闘争을 하여 왔었다. 한 植民地의 오명을 다른 植民地의 오명으로 바꾸기 위하여 抗日闘争을 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金日成과 그의 甲山派는 蘇聯의 속박에서 자유

로와질 機會를 간절히 기다렸음에 틀림이 없으며 그러한 機會가 韓國動乱동안에 왔다.

第2節 金日成의 蘇聯의 支配로부터의 離脫
(Kim Il-sung's Emancipation From Soviet Control)

甲山빨치산派에 의지하는 金日成은 蘇聯 顧問들의 撤收와 韓國動乱中의 中共의 介入을 巧妙하게 利用함으로써 党과 軍 內部에 獨自的인 權力基盤을 構築하고 蘇聯의 統制에서 離脫하기 시작했다. 決定的인 轉換點은 1956年 즉 아직까지 결코 安定基盤이 構築되지 못한 環境이었지만 金日成이 거의 確實히 蘇聯의 支持와 아마도 그 정도의 支持를 받은 內部 反對者들에 의한 顚覆努力에서 벗어난 때에 왔다. 후년에 金日成은 党의 指導的 地位에서 자신을 逐出하려고 試圖했던 "外部勢力"에 대해서 言及하곤 했다. 金日成은 이미 1953年에 國內共産主義者들을 肅淸했었는데 자신의 指導的 地位에 대한 이러한 外部的 挑戰에 뒤이어 高位指導部에서 殘存하는 蘇聯派와 延安派를 계속 肅淸하였다. 또한 金日成은 스탈린式의 1人獨裁를 發展시키기 위하여 오늘날까지 北韓에서 繁盛해온 "個人崇拜"를 도처에 確立하였다.

中·蘇紛爭은 金日成에게 모스크바와 北京사이를 策略操從함으로써 자신의 獨自性을 擴大할 機會를 賦與하였다. 그런 까닭에 中·蘇紛爭이 50年代 後盤에 시작되었을 때 金日成은 中立的 立場을 견

지하였다. 그러나 흐루시쵸프時代 後盤에 當時의 蘇聯指導部는 平壤에 대한 모든 援助를 中斷하였으므로 金日成은 신속하게 中共에 기울지 않을 수 없었다. 이 時期에 朝·蘇關係는 가장 소원하였는 바 1963年10月 北韓의 한 社說은 蘇聯을 다음과 같이 公開的으로 非難했다.

- 蘇聯은 經濟的 및 軍事的 援助를 北韓에 대한 內政干涉의 手段으로 使用했고 蘇聯의 援助는 항상 條件을 지녔다.
- 蘇聯은 自立的 民族經濟를 建設하려는 北韓의 試圖를 反對하였고 北韓을 CEMA와 東欧블럭經濟와 蘇聯의 經濟가 統合을 追求하는 東欧經濟委員會(East European Economic Council)에 加入시키려고 努力했다.
- 蘇聯은 흐루시쵸프의 格下運動에 따라 北韓의 党指導部의 顚覆을 計劃했다.
- 蘇聯은 그들의 優越性을 뽐내고 아시아 共産党들이 經驗不足으로 인해 獨自的 行動에 있어서 無能함을 冷笑하면서 優越的으로 쇼비니스트的으로 무례하게 人種差別主義的으로 行動했다.
- 蘇聯은 社會主義陣營의 安保에 있어 他共産國家의 役割을 輕視하였고, 그 國家들의 安保強化에 必要한 軍事的 協力을 無視하였으며, 北韓과 같은 國家들에 충분한 軍事的 支援을 주지 않았다.[5)]

1年後에 또 하나의 蘇聯에 대한 北韓의 暴露攻擊은 蘇聯은 阿

·亜國家들의 獨立性과 主權을 尊重하지 않고 그들 國家의 內政에 악랄하게 干涉하였으며, 그 國家들이 自身에 대한 原資財의 供給源이 되기를 원하였고 北韓에 대한 圧力의 手段으로서 援助中斷, 專門家 撤收 및 契約의 잔인한 破棄를 자행하였으며 蘇聯의 對北韓援助는 "非效果的"이었으며 또한 北韓의 값비싼 鉱物에 대해서는 國際市場價格 以下로 자신들의 設備는 國際市場價格보다 높게 價格을 策定하여 北韓을 갈취하려고 하였다고 非難했다.[6)]

이 두 記錄들은 함께 過去 北韓의 모스크바에 대한 뒷바라지의 정도와 또한 金日成이 獨立的 經濟 및 政治의 發展을 위해 취했던 努力을 理解하는데 관건이 되는 그 뒷바라지의 고통의 정도를 暴露하고 있다.

第3節 對모스크바關係의 浮深
(Ups and Downs with Moscow)

비록 金日成의 모스크바와의 關係는 흐루시쵸프時代의 後盤에는 소원했지만 北韓 獨裁者는 크레믈린과 友好關係를 再樹立하기 위하여 흐루시쵸프의 没落을 利用하였다. 金日成은 그렇게 할 몇 가지 動機를 가지고 있었다. 우선 對中共關係는 한때 中共의 文化革命이 내리막길을 걸었던 60年代 中盤에 惡化되기 시작하였다. 金日成은 남쪽 戰線에 美國이라는 敵을 갖고 있는 때에 同時에 북쪽 및 서쪽 國境에 蘇聯과 中共이라는 敵을 갖게 될 수가 없

었다. 둘째로 敵對國 美國이 1965年 北베트남에 爆擊을 하였고 그래서 金日成은 高度로 發達한 對空防禦 및 電子裝備를 원하였고 또한 실제로 獲得하였다. 세째로 金日成은 蘇聯의 經濟援助의 增大를 必要로 하였다.

간단히 말해서 비록 金日成은 對蘇關係의 지나친 密着의 危險性을 잘 알았지만 모스크바에 잘 보일 몇가지 強力한 動機를 가졌다. 한편으로는 對蘇不信 및 恐怖와 다른 한편으로는 對蘇 必要性의 이러한 結合은 現在까지도 金日成의 디렘마의 核心이 되어왔다.

흐루시쵸프가 브레즈네프와 코시긴에 의해서 蘇聯指導部에서 肅淸당하던 몇달 동안에 朝·蘇關係는 急速度로 진전되기 시작했다. 코시긴이 1965年2月에 4日동안 平壤을 訪問한 것은 그 決定的인 轉換點이었다. 이 訪問에 뒤이어 5年동안 蘇聯은 北韓과 새로운 防衛條約을 調印하였고 一連의 高度의 工業 프로젝트를 위한 援助를 增加시켰으며, 交易을 大幅 增加하였다. 1968年1月의 푸에블로號事件 때까지 北韓의 武裝軍隊는 潛水艦, T-54 및 T-55 탱크, Komar미사일艦, 레이다 및 지대공미사일, MIG-21제트戰鬪機를 包含한 蘇聯의 舊式裝備에 의해서 철저하게 再武裝되고 있었다. 蘇聯은 北韓의 地對空미사일 基地를 14개에서 35개로 두배이상 增加시켜서 總發射臺가 210개에 이르렀다. 同時에 모스크바는 北韓의 反韓外交運動을 다시 積極的으로 支援하기 시작했다.[7)]

그러나 60年代 後盤과 70年代 初盤의 朝·蘇關係의 改善에도 불

구하고 분명히 갈등의 조짐이 있었다. 蘇聯은 1968年1月 金日成의 푸에블로號의 拉致와 1969年4月 美國 偵察機 EC-121機의 격추로 인해 긴담이 써늘해졌다. 이 突發事件들은 北韓이 反美軍事挑發에 사용한 地對空미사일과 高度의 電子裝備를 包含해서 蘇聯의 舊式裝備가 北韓에 移轉된 直後에 일어난 것이었다.[8)]

각 事件後에 蘇聯은 共産党 政治局員들을 平壤에 急派했고 北韓指導部에게 社會主義陣營의 防禦는 集団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다시말해서 美國에 대한 單獨攻擊은 容納될 수 없다고 公開的으로 警告했다. 게다가 蘇聯은 이 時期에 닉슨行政府와 軍備統制 및 貿易協商의 基礎工事를 하고 있었으므로 몇가지의 高度로 象徵的 方法으로 北韓의 挑發에서 발뺌하였다. 蘇聯의 艦艇들은 公開的으로 美國의 艦艇들을 도왔는데 예를 들면 EC-121機의 `生存者의 捜索에 協調하였다. 1970年代 初盤까지 朝·蘇關係는 蘇聯이 그들의 顧客인 에집트, 리비아, 이락 및 시리아에 定期的으로 輸送하는 最新式 飛行機와 對空武器들을 平壤에는 輸送하기를 拒否하는 데까지 이르렀었다.

1974年과 1977年 사이에 朝·蘇關係는 오히려 더욱 惡化되었다. 아마도 이 惡化의 가장 적절한 徵兆는 1975年 金日成이 오랫만에 처음으로 海外旅行을 하였을 때 모스크바에서 歡迎받지 못하였다. 나는 그때 모스크바에 있었는데 한 蘇聯官吏가 本人에게 蘇聯 指導者들이 "너무 바빠서" 金日成을 만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官吏는 本人에게 金日成은 中共에게 거

의 좋을대로 맡겨진 "삶은 감자"라고 말했다.

北韓의 對蘇關係가 소원하여 있는 동안 金日成은 北京과의 關係를 미봉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中共의 文化革命의 終末을 利用하였다. 共産主義 同盟國들중에서 一方과의 關係가 惡化될 때 他方에 보다 密着하게 이동하는 것은 金日成의 特性이다. 1970年代 初盤까지 中共은 그들 나름대로 北韓에 대한 蘇聯의 影響力의 더 以上의 擴大를 沮止하기 위하여 平壤과의 關係를 改善하는데 마찬가지로 관심이 있었다. 그리하여 周恩來首相은 文化革命後의 最初의 旅行에서 個人的으로 平壤에 갔다. 그 以後 곧 朝·中關係는 상당히 改善되었다.

1975年 毛澤東은 비록 金日成이 韓國에 대한 보다 強硬한 行動에 대해서 中共의 支持를 얻을 수 있는가의 與否를 알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지만 그 北韓 指導者를 北京으로 歡迎하여 맞아들였다. 強硬한 行動은 毛澤東이 支持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었다. 金日成은 프놈펜이 사이공의 陷落直前에 完全히 陷落되자마자 성급히 海外旅行 길에 올랐다. 이런 저런 雰圍氣는 印度支那에서 美國의 立場이 惡化됨과 거기서 싸우는 美國의 분명한 역겨움을 利用할 수도 있었던 韓國에 대한 어떤 種類의 攻擊的 行動을 위하여 中共의 마음을 떠볼려고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毛澤東은 분명히 韓國에 대한 어떠한 軍事的 行動도 支持하기를 달가와 하지 않았다. 그러나 毛澤東은 金日成을 달래기 위해서 蘇聯도 拒否했던 北韓이 韓半島에서 唯一한 主權國家라는

北韓 當局者의 主張을 完全히 支持하였다. 中共은 또한 平壤에 대한 原油供給을 增加시켰고 北韓에게 어떠한 "2개의 韓國"思想에 대해서도 絶對的으로 反對한다고 保障했다. 中共의 이 모든 것은 蘇聯이 韓國에 積極的으로 接近을 試圖하던 時期에 이루어졌다.

第4節 1978年 後盤以來의 對中共關係의 緊張 및 모스크바로의 接近

(Since Late 1978: Strains in North Korean -Chinese Relations; Pyongyang Woos Moscow)

1978年 後盤 특히 中共이 對日 및 對美關係를 改善한 以來 中共, 蘇聯 및 平壤의 北方3角關係는 새로운 時代를 맞이한 것 같다. 金日成은 그 자신이 北韓에 대한 배반으로 看做한 中共의 對西方 和解關係의 發展에 놀라서 다시 對蘇關係를 改善하고자 했다. 그러나 蘇聯은 兩國 關係의 改善을 위한 金日成의 熱望에 部分的으로 應答하고 있으며, 金日成이 지금까지 마음먹은 것보다 北韓에게 더 큰 양보를 要求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最近의 局面은 매우 細密하게 檢討할 必要가 있다.

平壤과 北京間의 關係에서 緊張이 增大하기 시작한 1978年以來 그에 관한 수많은 조짐들이 있었다.

— 北韓의 媒體들은 1978年8月12日의 中·日平和友好條約을 支持는 고사하고 認定조차 하지 않았다. 同年 8月 中共 調

査使節団의 平壤訪問中에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副部長은 韓半島에서 "미쳐 날뛰는", "日本反動들"의 試圖에 대해서 신랄하게 言及함으로써 中·日條約을 間接的으로 非難하기까지 하였다.[9] 그 中·日條約에 뒤이어 中共의 媒體들이 太平洋에서의 蘇聯의 軍事的 存在가 日本에 漸增하는 威脅이므로 日本은 國防費 支出을 增大시켜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을 때 北韓의 媒體들은 그러한 主張을 拒否했다. 平壤은 그 자신이 東北아시아에 대한 威脅的 存在라는데 대한 蘇聯의 否認을 公開的으로 廣告하기 시작했고 그럼으로써 日本은 國防費 支出을 늘려야 한다는 中共의 主張을 은연중에 拒否하였다.[10]

— 平壤은 1979年1月의 美國과 中華人民共和國間의 關係正常化의 바로 그 시초에서부터 冷淡하게 反應하여 왔다. 北韓의 媒體들은 그 關係正常化에 대한 초기의 論評에서 왜 美國은 臺湾과의 安保條約을 廢棄했었던 것처럼 韓國과의 安保條約을 廢棄할 수 없는가? 또한 왜 美國은 臺湾에서 美軍을 撤收했었던 것처럼 韓國에서 撤收할 수 없는가?하고 의문을 提起하였다. 그것의 분명한 含蓄은 中共이 자신들에게는 利益을 가져다주지만 北韓에게는 冷水를 끼얹는 對美去來를 確定했었다는 것이다. 1980年10月 이러한 非難은 심지어 보다 直接的으로 가해졌다. 金日成은 "社會主義諸國이 帝國主義와 無原則的인 妥協을 하여서는 안되며"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利益때문에 다른 國家들의 利益을 犧牲시켜서는 안된

다"라고 警告했다.[11]

— 美·中共 關係正常化以來 北京과 平壤間에는 韓半島 統一問題와 駐韓美軍 撤收에 관한 이견의 조짐들이 계속 存在했다. 人民日報는 1979年의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建國記念日인 9.9節에 관한 社說에서 駐韓美軍의 撤收를 要求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그러한 行事에 대한 中共의 오랫동안의 慣例와는 完全히 對照的인 것이었다. 그 中共의 党 機關紙는 韓半島 現狀況에 대한 유난히 짧은 論評에서 또한 韓國에 대한 通常的인 批判을 싣지 않았고 韓半島 統一에 관한 中共의 通例的인 權威的 "支持"를 省略하였으며, 다만 統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12] 이러한 方式은 副首相 鄧小平이 1978年10月 日本에서 使用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었는데 이는 韓半島 統一問題에서 벗어나 절박감만을 취하는 方式이며 모두 다 統一에 대한 漸增하는 초조감을 反映하는 北韓 方式들에 예민하게 對照가 되는 方式이었다. 다시 1979年10月 한 北韓의 社說은 1977年, 1978年의 社說과는 달리 駐韓美軍 撤收에 대한 中共의 支持를 主張하지 못했고, 北韓의 党 機關紙 勞動新聞은 駐韓美軍 撤收에 대해서 蘇聯의 支持를 얻었다고 主張하였다.[13]

— 平壤은 過去 2年동안 일관하여 中共이 蘇聯을 批判하기에까지 이른 것을 달가와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華國鋒이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이란의 訪問中에 한 演說에 관한 記事

에서 反蘇的 言及을 省略하였다.[14] 또한 北韓은 平壤의 "支配主義"라는 用語와 中共이 蘇聯의 膨脹主義를 指稱하는 "覇權主義"라는 用語를 同一視하려는 中共의 努力에 抵抗하였으며, "支配主義"라는 用語를 어느 한 國家가 다른 國家를 統制하려는 努力을 指稱하는 보다 넓은 意味로 使用하였다.

— 過去 2년동안 中共과 北韓의 媒體들은 종래 그들이 使用한 善隣과 같은 정도로 두 國家間의 關係를 特徵的으로 描寫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人民日報는 1979年 北韓의 建國記念日인 9.9節에 관한 社說에서 "革命的" 同志關係 및 "軍事的"單一體에 관한 通例的인 言及을 省略하였다. 中共 역시 1971年以來 中共의 社說에서 일관되게 나타났었던 方式처럼 北韓의 指導力이 "賢明"하다고 特徵的으로 描寫하지 않았다.[15] 1979年10月1日 한 北韓 新聞의 社說은 通例的이었던 中共의 支持가 韓半島 闘爭에 대한 精神的 지주이었다고 特徵的으로 描寫하지 않았다. 아마도 무엇보다도 의미심장한 것은 1971年以來 계속 使用되어 오던 金日成의 敎示 즉 中共革命이 그 重要性에서 러시아大革命에 이어 둘째라는 金日成의 敎示를 復活시킨 것이다.[16] 또한 金日成은 1979年 中共의 共和國 創建記念日에 대한 祝電에서 兩國關係의 強化와 發展의 通例的 言及을 하지 않았다.[17]

— 종종 鄧小平의 見解를 反映하는 香港의 한 左翼系 新聞은 1980年11月에 金日成이 그의 아들 金正日을 後繼者로 擁立

하는 것을 反對하는 記事를 실었는데 그 記事는 金正日 擁立이 封建制度로의 歷史的 後退이며 金日成은 封建專帝制를 指向하고 있다고 主張하고 北韓은 그 方向을 修正하지 않는 한 끔짝없이 封建的 社會主義의 段階로 轉落할 것이라고 示唆하였으며[18], 또한 은연중에 北韓은 經濟改革의 廣範圍한 擴散과 對西方 門戶開放의 鄧小平 行動路線을 模倣함으로써만 發展할 수 있다고 示唆하였다.

- 中共이 國際共産主義運動 內部에서 어떠한 和解도 不可能함을 계속 強調하고 있을 때 北韓은 共産主義의 団結을 새롭게 強調하고 나섰다. 金日成은 1980年10月의 党大會에서 "모든 것"이 団合의 摸索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上述한 項目들이 朝·中關係의 緊張에 대해서 部分的인 公式的 조짐들을 說明하고 있는 반면에 아마도 公式媒體에 反映되지 않은 수많은 緊張의 다른 原因들이 存在한다.

- 中·越紛爭은 北韓에게 中共의 軍事力이 脆弱性을 證明하였으며 따라서 北韓은 모스크바에 敵對的인 北京에 지나치게 依存하는 安保戰略을 副次的으로 考慮했다.
- 中共의 새로운 實用的 經濟政策은 平壤이 採擇하고 있는 스탈린式 經濟政策에 明白히 對照가 되는 것이며 따라서 金日成은 鄧小平의 새로운 經濟政策이 자신의 政策에 대한 間接的인 拒否이며, 金日成의 스탈린式 經濟政策을 廢棄하고 鄧小平의 經濟政策을 模倣하기를 바랄지도 모르는 北韓 指導層內

의 테크노크라트들에게 생각할 여지를 줄 수 있다고 看做하지 않을 수 없었다.

- 中共의 毛澤東 格下計劃은 金日成을 위요하고 있는 個人崇拜에 대한 間接的인 批判이며, 金日成은 50年代 中盤의 자신에 대한 顚覆試圖가 흐루시쵸프의 스탈린格下運動에 의해서 고무된 것임을 잊지 않았다.
- 中共은 아마도 當面한 經濟의 再調整의 어려운 時期에 自體의 內部的 難題와 資本不足으로 인하여 北韓에 대한 援助를 削減하지 않을 수 없었다.
- 中共이 활발한 對韓間接貿易의 門戶를 開放하였고[19] 鄧小平은 日本 및 美國과의 協力아래 韓國이 中共의 現代化에 重要한 役割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수많은 조짐이 있으며, 金日成은 그러한 思考를 中共의 北韓에 대한 背信으로 規定하지 않을 수 없다.

北韓의 北京과의 關係가 이렇게 심각하게 緊張되어 있는 반면에 平壤은 모스크바와의 關係의 改善을 試圖하고 있다는 많은 조짐들이 있다.

- 1978年1月 蘇聯의 政治局員 쿠나예프는 그만한 高位官吏로는 5년만에 처음 平壤을 訪問하였으며 北韓은 그를 歡迎하여 맞이했다.
- 北韓은 1978年 볼쉐비키革命 記念日에 브레즈네프의 祝電에서 蘇聯과의 親善關係를 "소중한 것"으로 표현했는데 이는

1974年以來 北韓이 使用하지 않았던 말이다. 北韓의 人民武力部長 吳振宇의 메세지는 또한 朝·蘇間의 軍事的 紐帶關係에 言及하면서 善隣關係가 增大됨을 적고 있다. 이전의 메세지들은 그 紐帶關係를 단지 "傳統的"인 것이라고 하였었다.[20]

1978年8月 日帝로부터의 解放記念日에 平壤은 다시 모스크바와 關係를 改善할 용의가 있음을 신호했다. 金日成은 1979年8月14日 브레즈네프에의 메세지에서 關係를 發展시키는데 最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는 바 이는 最近에 北韓의 두 密接한 同盟國인 中共과 캄보디아에 대한 메세지에서만 使用한 公式表示였으며[21], 北韓의 人民武力部長 吳振宇는 자신의 蘇聯의 상대자에게 메세지를 보내었고 이렇게 해서 1976年에 한때 抛棄했었던 通例的 慣例를 回復시켰다.[22]

— 金日成은 1979年 볼쉐비키革命記念日에 蘇聯에 보낸 메세지에서 이전의 "따뜻한"인사에서 한단계 높혀 "가장 따뜻한" 祝賀를 하였으며, 몇년만에 처음으로 蘇聯의 成功이 蘇聯共産党의 指導力 밑에서 이루어졌었던 것임을 지적했다. 10月革命의 平壤記念式에서 北韓演士들은 "브레즈네프"에 의해서 영도되는 蘇聯共産党(CPSU)에 대해서 言及했는데 이는 蘇聯指導者에 대한 言及을 회피했던 그 以前의 北韓의 慣例에서 벗어난 것이었다.[23]

— 北韓은 1980年1月 蘇聯이 아프카니스탄을 侵攻한 후 곧 카

르말 바브락傀儡政府를 認定했다. 아프카니스탄 라디오는 그 傀儡政府가 政權을 잡은지 두달후인 1980年2月에 金日成이 바브락에게 祝電을 보냈었다고 報道했다. 이어 4月26日에 平壤 媒體들은 아프카니스탄革命 2周年에 바브락에게 보낸 金日成의 메세지를 報道했는데 그 메세지는 아프카니스탄이 革命의 利益과 獨立을 保護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克服할 必要性에 焦點을 두었다. 1980年5月에 카불의 라디오는 北韓과 아프카니스탄間의 라디오 및 TV協定의 調印을 報道하였다.[24]

— 1980年5月 金日成은 유고슬라비아의 티토葬禮式에서 브레즈네프를 만났는데 勞動新聞은 이 會合을 "매우 重要한 歷史的 事件"이라고 일컬었다.[25]

— 過去 2년동안에 그 이전의 5, 6년 동안보다 많은 다수의 北韓의 高位人士들이 모스크바를 訪問했다. 예를 들면 1979年6月18日부터 25日까지 北韓의 政治局 使節団이 蘇聯을 訪問했다.

— 北韓은 非同盟運動의 會合에서 쿠바와 對立하고 또한 蘇聯이 그 運動의 "당연한 盟員"이라는 쿠바의 立場을 拒否한 以來 모스크바의 가장 가까운 同盟國인 쿠바와 非同盟運動에서의 相互關係를 改善하기 위해 努力해 왔다.

— 1980年10月 蘇聯의 政治局員 그리쉰은 北韓의 党大會에 參席했는데 平壤은 蘇聯과 中共의 使節団을 비록 同一 取扱하

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공평하게 取扱하였다. 그들은 동등한 位置에서 党 政治局員들에 의해서 마중되었고 党秘書 김환에 의해서 餞送되었다. 金日成은 中共使節団과는 2번, 蘇聯使節団과는 1번 만났으나 金이 両使節団을 모두 만난 것은 1973年以來 처음이며 1974年과 1978年에 그렇게 할 機會가 있었으나 金日成은 蘇聯使節団을 푸대접하였다.[26)]

이러한 모든 證據와 앞에서 本人이 言及했던 FBIS의 Trends in Communist Media에 包含된 證據의 대부분은 매우 간단하지만 重要한 結論으로 인도한다. 平壤과 北京과의 關係는 매우 심각하게 緊張되어 있으며 北韓은 對蘇關係를 改善하기를 원한다. 平壤이 蘇聯의 要求에 얼마만큼이나 呼應할 準備가 되어 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平壤이 "支配主義"에 대한 자신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아프카니스탄의 바브락政府를 기꺼이 認定한 것은 北韓이 蘇聯의 圧力을 상당히 느끼고 있다는 것을 示唆하고 있다.

蘇聯은 이러한 北韓의 接近에 어떻게 對應하고 있는가? 蘇聯은 관심을 갖지만 약간의 條件을 갖고 對應한다. 마치 蘇聯은 자신들이 北韓의 接近에 진심으로 기꺼이 呼應하게 되기에 앞서 北韓의 對外政策이 中共에서 蘇聯으로 보다 공공연하게 이동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蘇聯이 北韓에 대한 支持를 增大하는 方向으로 나아가는 약간의 징후들이 있다.

— 프라우다紙 社説은 1978年10月12日 朝·蘇外交關係樹立 30

周年을 祝賀하면서 韓半島에서 자신들이 唯一한 主權國家라는 北韓의 主張을 거의 認定하다시피 했다. 이는 以前에 蘇聯이 아니라 中共이 認定했던 主張이다. 프라우다紙는 서울,도쿄 및 워싱턴을 "두개의 韓國"을 促進한다고 猛非難하였고, 蘇聯은 "韓國 民族의 밝은 未來를 상징하는 하나의 韓國,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만을 認定한다고 하였다.[27]

— 다시 1978年 볼쉐비키革命記念日에 平壤리셉션에서 蘇聯大使는 韓半島 分斷의 永久化를 試圖하는 韓國, 日本 및 美國을 非難하였고, 특히 蘇聯과 中共이 韓國과 關係를 改善한다면 美國은 北韓과의 關係를 改善한다는 4年前의 提案인 "交叉承認"方式을 拒否한다고 宣言하였다. 이 提案은 平壤을 매우 憤怒케 한 것으로서 平壤은 그것을 "두개의 韓國"政策과 동일시하였다.[28]

그러나 대체적으로 蘇聯은 北韓의 제스처에 지나치게 呼應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다. 蘇聯은 뒷전으로 물러서서 北韓이 求婚者로서 行動하게 했다. 이러한 蘇聯의 行動은 解釋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本人의 見解로는 蘇聯은 金日成이 지금까지 달가와하지 않는 多數의 양보를 強要하기로 決心한 것 같다. 蘇聯은 아마도 金日成이 蘇聯의 對外政策에 대한 攻擊을 中止하고 對中共關係를 보다 明白하게 단절하며, 北韓의 經濟를 CEMA를 통해서 蘇聯經濟에 보다 密接하게 統合되는 것 等을 원하는 것 같다. 蘇聯은 또한 時間이 자기편에 있다고 計算할 것이다. 北韓에 대

한 圧力은 本人이 後述하는 바와 같이 增大될 것 같다. 그러한 環境下에서 平壤은 어느날 蘇聯의 條件에서 蘇聯과 和解할 必要를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蘇聯은 金日成의 死後에 豫想되는 北韓內의 一連의 危機가 北韓을 蘇聯陣營으로 密着시킬 절호의 機會를 갖다 줄 것이라고 計算할 것이다. 蘇聯의 週間誌 짜루베쯤이 最近에 北韓의 한 官吏가 "金日成과 그의 公認된 後繼者인 金正日이 蘇聯 및 蘇聯人民들과의 紐帶關係는 소중하게 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한다"고 한 것을 引用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29] 이 記事는 蘇聯의 對北韓關係가 金日成時代가 지나고 그의 아들이 權力을 잡거나 혹은 새로운 世代가 北韓 指導層을 形成한 후에야 극적으로 改善될 수 있을 것이라는 蘇聯의 見解를 反映하는 것일 것이다.

第2章 北方3角關係에서의 各國의 利益 (The Interests of Each Side in The Triangle)

이러한 背景下에 우리는 모스크바, 北京 및 平壤의 北方3國의 나름대로의 動機를 分析할 수 있고, 이 3角關係가 強大國關係의 최근의 變化의 脈絡에서 指向해 나아가는 지점을 豫測할 수 있다.

第1節 中共의 目標

現時點에서 中共은 韓半島에서 몇개의 目標를 갖고 있다. 첫째로 韓半島가 反蘇化 되기를 원한다. 韓國은 이미 西方同盟體에 묶여 있다. 따라서 中共의 우선적인 努力은 北韓을 이러한 方向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中共은 北韓을 日本과 美國에 보다 密着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둘째로 中共은 韓半島가 窮極的으로 中共의 現代化를 經濟的으로 支援하기를 支援하고 있다. 中共은 南北韓間에 어떤 種類의 和解가 存在한 후에야 그러한 支援을 대량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和解를 위하여 努力하는 것이 中共의 利益이다. 카터行政府의 韓國, 北韓 및 美國間의 3者會談 提案에 대한 中共의 贊成은 그러한 中共의 두 利益을 반영했다.

中共은 北韓에게 무엇을 納得시키려고 하는가? 아마도 北韓의 利益은 韓國, 日本 및 美國과의 和解속에 存在한다는 것일 것이다.

만약 北韓이 中共의 對西方 門戶開放을 모방한다면 北韓은 蘇聯의 "支配主義"에 대한 어느 정도의 保障을 얻어낼 수 있으며 과중한 負擔을 지고있는 北韓의 經濟를 復興시킬 수 있는 西方의 經濟的 및 軍事的 支援을 얻을 수 있다. 金日成의 韓半島 統一의 꿈에 관해서는 中共은 아마도 金日成에게 中共과 蘇聯 모두가 서명하기를 싫어하는 戰爭에 의하지 않는한 가까운 將來에 불가능하며 金日成의 최선의 希望은 對美和解이며 漸進的으로 韓國을 인수하기 위해 努力하는 것이라고 아마도 종용하는 것일 것이다. 韓半島가 "終局的으로는" 統一될 것이라는 鄧小平의 소견은 그러한 說明과 一致된다.

金日成은 의심할 必要도 없이 자신에게 그러한 충고를 주는 中共의 動機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다. 金日成은 아마도 자신들의 利益을 위해서 中共이 아시아에서 促進시키려는 反蘇同盟에 金日成을 끌어들일 策略을 試圖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金日成 자신의 利益은 그러한 方向에 있는 것이 아니다. 中共이 권유한 行動路線을 追求한다면 金日成은 절대로 許容하지 않으려는 모스크바와 完全한 단절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단절은 적어도 要望되는 蘇聯의 經濟的 및 軍事的 援助의 中斷은, 最惡에는 北韓에 대한 蘇聯의 軍事的 介入을 가져올 것이다.

第 2 節　蘇聯의　目標

蘇聯은　北方 3 角關係에서　몇개의　目標를　갖고　있다.　첫째로　蘇聯은　北韓을　中共으로부터　斷絶시키기를　원한다.　中共의　對西方　關係改善에　대한　北韓의　不滿은　蘇聯으로　하여금　그　와중에서　한목　볼　機會를　提供했다.　이것은　蘇聯이　韓半島　統一問題에　관한　자신들의　입장을　強硬하게　하고　"두개의　韓國"固定化에　명백히　反對하는　理由를　說明해　준다.　蘇聯은　아마도　北韓에게　中共은　"두개의　韓國"을　支持하며,　駐韓美軍의　駐屯을　기꺼이　容認하며,　北韓을　美國에게　"팔아넘기고"있는데　이　모든　것은　中共의　利益을　促進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說明하고　있다.

둘째로　蘇聯은　北韓이　蘇聯의　對外政策에　대한　敵對를　中止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北韓의　敵對는　"支配主義"에　대한　계속적인　攻擊,　베트남의　캄보디아侵攻에　대한　繼續的인　反對,　시아누크에　대한　繼續的인　支持,　非同盟運動에서의　쿠바에　대한　反對,蘇聯의　아프카니스탄侵攻에　대한　從來의　反對　等에　反映되었다.　마지막으로　蘇聯은　특히　北韓을　經濟統合을　指向하는　蘇聯블럭의　協議體인　CEMA에　連繫시키는　方法에　의해서　北韓은　蘇聯블럭에　再統合시키기를　원한다.

第 3 節　北韓의　政策

北韓의　北方 3 角關係에서의　利益은　첫째로　상호 競爭的인 蘇

聯과 中共의 利益을 조종하는 것이다. 金日成은 지금까지 이러한 조종을 매우 効果的으로 구사해 왔다. 金日成은 蘇聯 및 中共과 安定的인 關係를 維持해 왔으며, 두 共産巨國들로부터 原油를 包含한 다수의 軍事的 및 經濟的 援助를 獲得해 왔는데 이 모든 것은 金日成이 자신의 獨立性을 讓步하지 않고서는 不可能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均衡行動은 매우 危險하게 되고 있다.

우선 첫째 中·蘇戰爭이 勃發한다면 러시아 및 中共에게는 他方이 먼저 北韓에 진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거의 確實한 一次的 目標다. 中共의 立場에서는 北韓이 滿洲와 蘇聯사이에서 緩衝地帶로 남아있는 것이 치명적으로 重要하고 만약 蘇聯軍隊나 蘇聯의 軍事基地가 北韓에 駐屯하게 되면 滿洲는 蘇聯에 의해서 完全히 포위된다. 蘇聯으로서는 北韓에 中共의 軍隊나 軍事基地들이 駐屯하면 蘇聯 延海 地方洲특히 蘇聯 太平洋艦隊의 本據地인 블라디보스톡에 重大한 威脅이 되기 때문에 中共의 軍隊나 軍事基地가 北韓에 駐屯하지 않는 것이 決定的으로 重要하다. 따라서 中·蘇戰爭의 경우에 혹은 中·蘇 國境에서 緊張이 增大되는 경우조차도 雙方은 他方을 선제하기 위해서 北韓에 進入할 커다란 유인을 갖게 된다. 雙方은 北韓과 그러한 軍事介入을 合法化할 安保條約을 맺고 있다. 金日成이 그러한 可能性을 심각하게 憂慮한다는 것은 1980年 第6次 党大會에서 한 金日成 演說中의 몇몇 句節들에서 明白히 나타난다.

둘째 비록 中·蘇戰爭이 회피될 수 있다 하더라도 아시아에서의

大國들의 새로운 紐帶關係는 北韓의 未來方向에 관한 中共 및 蘇聯의 두려움을 增加시켰고, 따라서 두 共産巨國은 北韓을 자기쪽에 密着시키기 위해서 圧力을 增加시킬 것으로 豫想된다. 蘇聯은 美國, 中共 및 日本이 現在 太平洋에서 發展되고 있는 反蘇聯合에 北韓을 끌어들이려고 試圖할 것이라고 憂慮하고 있으며, 만약 北韓이 中共쪽으로 지나치게 편향한다면 蘇聯은 지금까지 韓半島에서 취해오던 特徵的인 종래의 行動인 극도의 자제를 抛棄할 것이다. 蘇聯으로서는 反蘇指向的인 美國, 中共, 日本, 韓國 및 北韓의 軸을 참을 수 없다. 中共은 다른 한편으로 蘇聯이 中共의 對美關係 正常化의 背信的 試圖에 대한 北韓의 感情을 成功的으로 利用할 것이며 平壤을 모스크바에 점점 密着시킴으로서 아시아에서 中共의 포위내지는 孤立化를 達成할 것이라고 憂慮하고 있다. 어떠한 中共 政府라도 이러한 展望을 하게되면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일종의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세째 金日成은 均衡行動의 危險性을 잘 알고 있다. 蘇聯의 아프카니스탄侵攻과 베트남의 캄보디아侵攻에 따라 1980年 10月에 열린 党大會에서 金日成은 北韓의 獨立守護 能力에 대한 憂慮를 公開的으로 表明하였다. 비록 金日成은 그렇게 直接的으로 言及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北韓에 대한 蘇聯의 軍事介入 可能性을 생각하고 있었다. 만약 蘇聯이 北韓을 侵攻한다면 金日成은 어떻게 할 것인가? 中共이 金日成을 도우러 올 것인가? 비록 中共이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結果는 北韓의 모스크바와 北京사

이에서의 斷絶과 北韓의 獨立性의 終末일 것이다.

게다가 金日成은 韓半島 統一의 꿈에 執着하고 있는 한 항상 美國과의 紛爭의 危險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蘇聯의 支援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마지막으로 北韓은 아직도 蘇聯에게 交易의 大部分과 原油 및 軍事援助의 一定量을 상당히 依存하고 있다. 이것은 蘇聯에게 北韓에 대한 상당한 經濟的 지렛대를 提供한다. 다음을 考慮해 보자.

1) 北韓은 原油 및 石油製品의 반을 蘇聯에서 들여온다.

2) 한 愼重한 評價에 의하면 1976年에 北韓은 對蘇輸出이 全體輸出量의 37%를, 對蘇輸入이 全體輸入量의 31%를 차지하였다. (Herbert S.Levine and Ed Hewett, "The Soviet Union's Economic Relations in Asia", Zagoria, ed., Soviet Policy in Asia, Yale, 근간)

3) 다른 愼重한 評價에 의하면 1974年과 1978年사이에 北韓의 武器輸入 4億9千萬$중에 蘇聯은 거의 반인 2億2千萬$을 차지했다.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s 1969～78, U.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1980, p.160)

4) 蘇聯은 70年代 中盤에 發生한 平壤의 西方債務 不履行의 淸算을 支援하기 위해서 北韓에게 어떠한 硬貨形態의 도움도 增大하기를 단호하게 拒否했다. 분명히 蘇聯은 자신들이 支援하기를 바라고 北韓도 蘇聯의 條件들에 기꺼이 呼應하기만

하면 北韓을 支援할 수 있었다.

5) 50年代 以來의 朝·蘇貿易 數値에 관한 한 硏究論文은 (Table Ⅰ參照) 70年代 初盤에 北韓은 對蘇交易에서 有利한 均衡을 가졌었다. 蘇聯은 자신들이 輸入하는 것보다 北韓에 더 많이 輸出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7年에 그 交易은 均衡을 維持했고 1978年에는 蘇聯은 輸出한 것보다 北韓에서 더 많이 輸入했다. 이것은 蘇聯이 1978年에 北韓의 對蘇債務를 淸算하기 위하여 자신들에게 有利하게 貿易均衡을 主張한 것을 示唆한다. 이것은 또한 蘇聯이 對蘇貿易赤字를 財政的으로 支援하기 위하여 北韓에게 信用을 주기를 中止했던 것을 示唆한다. 蘇聯이 平壤에 보내고 있는 메세지들은 "우리와 協力하면 우리는 보다 관대해질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Levine과 Hewett가 斷言하였듯이 "그 經濟的 去來에서 볼 때 蘇聯과 對北韓 態度는 基本關係를 維持하는 그 以上은 아니며 北韓의 政策 혹은 指導部가 變化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北韓의 對蘇依存은 향후 몇년동안 더욱 增加될 것이다. 한 통찰력 있는 觀察者가 지적했듯이 北韓은 軍部와 一般經濟를 支援하기 위하여 經濟를 限界에 이르도록 고갈시켰다. 北韓은 사실상 經濟發展에 投資할 資源도 없이 무거운 外債에 直面해 있으며, 動力, 輸送 및 人力의 不足을 包含한 심각한 內部問題를 지니고 있다. 軍事裝備의 國內 生産能力은 先進技術의 斷絶로 상

당히 制限될 수 있다. 그러므로 北韓은 獨自性에 관한 용감한 말에도 不拘하고 經濟援助와 高度의 軍事 및 産業技術에 대한 外部援助者들에게 사실상 보다 依存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北韓의 디렘마는 韓國의 成長하는 經濟力 및 軍事力으로 인하여 보다 惡化될 수 있다.[30]

北韓의 3角關係에서의 두번째 利益은 그 重要한 利益으로서 韓半島 統一에 대한 蘇聯 및 中共의 支持를 얻는 것이다. 金日成은 最近 몇년동안 이러한 努力에서는 거의 成功을 거두지 못했다. 蘇聯은 70年代 初盤에 北韓의 지나친 中共偏向이 가져오는 있음직한 結果를 警告하기 위해서 분명한 試圖로써 韓國에 호의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또한 韓半島에서 唯一한 合法政府라는 北韓의 主張을 拒否했다. 中共은 보다 最近에 韓國과 間接貿易을 하기 시작했고 韓半島 統一이 가까운 將來에 實現 可能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신호를 주어왔다.

그러나 金日成은 아직도 蘇聯의 政策에 보다 接近함으로써 蘇聯이 韓半島 統一에 대한 자신들의 政策을 再考하기를 希望할 것이다. 本人이 앞에서 指摘했듯이 蘇聯은 1978年에 韓半島 統一問題에 보다 強硬한 路線을 취하기 시작했고 "두개의 韓國"을 反對하는 平壤路線을 거의 支持하기에 이르렀다.

要約해 말하면 金日成 혹은 그의 後繼者는 1980年代에 모스크바와 北京사이에서 危險스러운 均衡行動을 持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確實치 않다. 게다가 北韓에서 金日

成 死後에 거의 豫想되는 바와 같이 一連의 위기가 있게되면 그 것은 蘇聯이 利用可能한 長期間의 不安定의 時期가 될 것이다.

第3章 北方3角關係에서의 새로운 變化와 그 結果 (Some Possible Consequences of New Changes in The Triangle)

70年代의 대부분간 北韓은 明白히 同一한 수많은 方法으로 모스크바와 北京사이에서 愼重하게 均衡을 維持하는 한편 中·蘇紛爭에서는 中共쪽으로 "傾斜"하였다. 平壤의 北京 "傾斜"는 아시아에서의 蘇聯 軍事力의 急激한 膨脹, 蘇聯의 印度, 베트남, 이락, 시리아 및 아프카니스탄과의 友好條約 締結, 蘇聯의 아프카니스탄侵攻 및 蘇聯의 支持를 받은 베트남의 캄보디아侵攻, 中·越 및 中·蘇間의 쓰라린 敵對의 增大를 목격했던 過去의 10년동안 아시아에서 蘇聯의 힘을 抑制하고 中共을 안심시키는데 寄與했다.

北韓은 最近 2년동안 마찬가지로 同一한 여러 方法에 의해서 모스크바와 親善關係를, 中共과는 冷却關係를 維持하여 왔다. 北韓이 향후에 실제로 모스크바로 "傾斜"할 것인가 아니면 中·蘇論爭에서 보다 中立的인 政策을 持續할 것인가를 豫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北韓이 80年代에 모스크바로 "傾斜"하는 것은 상당히 可能한 것 같다. 만약 蘇聯이 平壤에 대한 經濟的 및 軍事的 支援을 增大하고 韓半島 統一에 대해 매우 強硬한 路線을 취할 자세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北韓의 "傾斜"가 發展되리라고 상상하는 것은 可能하다. 蘇聯은 세가지 理由에서 기꺼이 援助를 增大

시키고 韓半島 統一에 대해서 상당히 強硬한 路線을 취할 것이다. 첫째, 蘇聯은 美·中間의 準同盟關係를 妨害하기 위해서 "北韓카드"를 使用하기를 원할 것이며, 韓半島 統一에 대한 蘇聯의 보다 強硬한 立場은 中共에게 韓半島 統一路線을 強硬하게 하는 달갑지 않은 代案을 갖게 하며, 그럼으로써 中共은 對美關係를 惡化시키거나 아니면 北韓이 부지중에 蘇聯陣營에 보다 密着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蘇聯은 北韓에 대한 影響力을 다시 確保함으로써 美國이 페르시아湾과 印度洋에서 軍事力을 構築하는 것을 混乱시키기를 바랄 것이다. 세째 蘇聯은 北韓을 자신들의 影響力의 範圍內에 包含시킴으로써 中共의 포위 내지는 孤立化를 完成할 수 있다.

비록 蘇聯은 從來에 韓半島 統一에 대해서 극도로 愼重하게 처신해 왔으며, 또한 美·蘇關係가 惡化되고 美·中共關係가 改善되고 있는 새로운 國際的 狀況에서 金日成은 信賴하지 않고 있지만, 蘇聯은 이제 韓半島에서 보다 덜 자제하면서 行動하기 시작할 수 있다. 確實히 蘇聯은 北韓을 戰爭으로 밀어부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蘇聯은 北韓을 美·中共關係를 分裂시키는 쐐기로서 利用하려는 유혹을 가질 것이며, 이것은 결국 특히 레이건行政府가 中共에 대한 武器販賣를 強行한다면 아시아에서 基本的인 蘇聯目標가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北韓은 극도의 對蘇不信에도 不拘하고 蘇聯의 軍事的 및 經濟的 援助의 增大를 받고 또한 韓半島 統一問題에 대

한 蘇聯의 보다 強硬한 支持를 받게 된다면 모스크바로 偏向하려고 할 것이다.

만약 北韓이 1980年代에 蘇聯으로 상당히 偏向한다면 그 結果는 西方에게 해로울 수 있다. 무엇보다도 첫째 北韓은 蘇聯의 軍事的 및 經濟的 援助의 유입과 統一에 대한 보다 強硬한 路線에 고무되어 韓國에 대해서 보다 큰 危險을 감수할 誘惑을 갖게 될 것이다. 만약 北韓이 蘇聯의 實質的인 支持를 받고 韓國에 대한 圧力을 加重시킨다면 韓半島에는 새롭게 危險스러운 緊張의 時代가 到來할 수 있다. 둘째 北韓의 모스크바 "傾斜"는 中共으로 하여금 일종의 必死的인 行動을 하도록 刺戟할지도 모른다. 中共으로서는 특히 모스크바가 베트남이나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影響力을 擴張한 以後에는 敵對的인 蘇聯의 平壤 支配를 참을 수 없다. 中共은 지금보다 훨씬 脆弱했던 1950年代에도 敵對的인 蘇聯의 北韓支配를 참는 어려움을 露骨的으로 나타냈다. 中共은 1980年代에 蘇聯軍의 北韓 進入을 어리석게 방관하거나 許容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北韓의 모스크바 "傾斜"는 아시아에서의 中·蘇戰爭의 可能性을 增大시킬 수 있으며, 그러한 事態發展은 確實히 우리 西方의 利益이 되지 않을 것이다.

세째로 1980年代에서의 北韓의 모스크바 "傾斜"는 아마도 美·中共關係에 새로운 마찰을 創出할 것이다. 일부의 中共 指導者들은 벌써 鄧小平이 關係正常化 과정동안 美國에게 너무 많은 方法을 주었다고 批判하고 있는데 그들은 틀림없이 鄧小平에게 北韓

을 "잃은"데 대한 責任을 물을 것이다. 反對로 美國은 中共이 北韓을 統制할 수 없는 사실때문에 不滿을 느낄 것이다. 그리하여 北京과 워싱턴은 北韓의 "喪失"에 대하여 相互 非難하기에 이를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北韓의 對蘇傾斜는 인도지나半島의 喪失以後 增大되어 온 아시아 非共産國家들의 恐怖 즉 美國은 아시아에서 蘇聯의 勢力膨脹을 抑制할 수 없다는 恐怖를 더해 줄 것이다.

第4章 美國에 대한 몇가지 意味
(Some Implications for the U.S.)

美國과 東北아시아에서의 美國의 同盟國 및 友邦 특히 韓國과 日本은 北韓의 모스크바 "傾斜"를 저지하는 데에 있어서 共通의 利益을 갖고 있다. 그러한 北韓의 모스크바 "傾斜"를 저지하기 위하여 設計된 戰略은 몇가지 要素들을 갖추어야만 한다.

1) 美國은 北韓에게 韓國에 대한 어떠한 武力의 使用도 저지할 것이라는 決意를 계속 強調하여야 하며, 平壤이 워싱턴과 서울사이에 쐐기를 박을 어떠한 機會도 없음을 證明하여야 한다. 레이건行政府의 첫 2週日만에 이루어진 韓國 大統領의 워싱턴 訪問은 이미 이러한 方向으로 상당히 진척시켰다.

2) 美國은 또한 카터行政府의 駐韓美戰鬪師団의 撤收로 인하여 惡化된 韓國과의 關係에서 相互信賴 및 確信의 紐帶를 回復시키기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레이건行政府는 카터의 政策과 駐韓美軍의 撤收를 變更할 의향을 闡明함으로써 이 方向에서 巨步를 내디뎠다.

3) 韓國 및 日本과 密接한 協力關係에 있는 美國은 平壤이 모스크바와 北京사이에서만 選擇을 強要당하지 않도록 지금 北韓에게 "西方의 意見"을 傳達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美國은 金日成에게 만약 韓國이 當事國으로 包含된다면 美國은 美·北韓會談을 開催하자는 北韓의 提案을 檢討할 용의가 있

음을 闡明할 수 있다. 過去에 問題가 되는 점은 北韓이 韓國을 그러한 會談에서 同等한 當事國으로 認定하기를 拒否한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韓·美關係가 增進되어 왔기 때문에 當事國들간의 난관을 解決할 方法이 發見될 수 있을 것이다.

4) 與他問題에 대해서 北韓을 좀더 細密하게 考察해보면 美國은 몇개의 "非公式的"인 議會調査旅行班의 平壤旅行을 承認할지도 모른다. 솔라즈議員은 昨年에 한 集団을 이끌고 平壤을 다녀왔다. 솔라즈議員의 訪問은 美·北韓關係에 어떠한 劃期的 變化도 招來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一連의 美議會의 平壤 및 서울訪問은 美國, 平壤 및 서울을 滿足시킨 協商方式을 찾는데 寄與할지도 모른다. 적어도 그러한 一連의 訪問은 이러한 여세를 維持시키며 또한 北韓에게 우리가 會談에 관심이 있음을 넌지시 알릴 것이다.

5) 美國은 또한 北韓이 지나치게 蘇聯과의 交易과 技術에 依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日本, 西獨 및 其他의 産業強大國들에게 北韓과 交易을 하도록 勸誘할 수 있다. 北韓의 過去의 債務不履行 때문에 그러한 交易에는 커다란 난관이 있겠지만 美國은 그 同盟國들에게 平壤에 보다 관대하도록 勸誘할 수 있다.

6) 北韓과의 關係를 改善하려는 西方의 努力은 모스크바를 刺戟하지 않고 이루어질 必要가 있다. 蘇聯은 美國이 反蘇聯合

의 軸에 日本 및 中共과 더불어 北韓을 연결하려 한다고 結論짓게 되면 北韓의 冒險主義를 고무할 誘惑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事態의 發展은 狀況을 더욱 惡化시킬 수 있다. 西方의 利益은 北韓이 對西方關係를 改善하도록 고무시키는 한편 모스크바와 北京사이에서 均衡을 維持하려는 北韓의 行動을 도와주는 것이지, 아시아에서 反蘇聯合의 軸을 構築하려는 中共의 計劃을 도와주는데 있지 않다.

7) 만약 우리가 우리쪽의 카드들을 適切하게 使用한다면 時間은 우리편이 될 수 있다. 北京을 西方에 密着시켰던 힘들의 組合이 平壤이 直面한 狀況에서도 이제 이미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北韓은 蘇聯의 아프카니스탄侵攻 및 베트남의 캄보디아侵攻을 미루어보아 北韓 自體의 安保에 가장 威脅的인 存在는 美國과 韓國이 아니라 蘇聯이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음에 틀림없다. 同時에 北韓의 經濟는 엉망이 되어있다. 北韓은 西方과의 交易과 技術의 獲得에 의해서 北韓의 經濟를 復興시키기를 바랄 수 있다. 따라서 戰略的이고 經濟的인 理由들로 인해서 北韓은 中共이 한 바와 똑같이 再統一의 꿈을 당분간 延期하고 西方에게 門戶를 開放하기로 決定하였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西方은 北韓에게 이러한 것이 現實的으로 不可能하다라고 確信시키는 짓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

8) 무엇보다도 지금은 北韓問題를 美國의 對外政策의 重要議題로

올려 놓아야 할 時期이다. 카터行政府동안에는 어떻게 駐韓美軍을 撤收할 것인가라는 問題에 많은 努力이 허비되었지만, 진실로 重要한 問題는 韓·美關係를 損傷시키거나 蘇聯을 刺戟시키지 않고 또한 駐韓美軍의 段階的 撤收가 可能하다는 北韓의 믿음을 고무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北韓을 孤立에서 끌어내어 美國, 日本 및 韓國과의 關係를 改善하도록 만드느냐 하는 것이다.

9) 레이건行政府는 韓半島問題를 3段階로 接近할지도 모른다. 첫 段階는 北韓과 非公式的 對話를 試圖하고 그에 관한 西方의 立場을 調整하기 위해서 韓國 및 日本과 共同研究를 遂行하는 것일 것이다. 둘째 段階는 카터行政府의 韓國, 北韓 및 美國間의 3者會談 提案을 復活시키는 것일 것이며, 세째 段階는 韓國, 北韓, 日本, 美國, 中共 및 蘇聯을 包含시키는 키신저의 6者會談 提案을 復活시키는 것일 것이다.

10) 만약 韓半島問題가 1980年代에 解決되는 方向으로 보다 進展되지 않는다면 韓半島問題는 앞으로 東北아시아의 不安定에 대한 주된 原因이 될 潛在的 可能性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潛在的 可能性이 實現되는 것은 보고만 있지 않으려면 지금 措置를 취하는 것이 必要하다.

<<表 1>>

北韓의 對蘇交易(Million Foreign Trade Rubles)

區分 / 年度	輸 出	輸 入	區分 / 年度	輸 出	輸 入
1955	39.7	36.7	1974	194.3	148.9
1960	35.5	67.2	1975	186.8	151.4
1965	80.8	79.5	1976	181.8	118.7
1970	207.0	128.9	1977	164.7	164.0
1973	224.0	133.3	1978	176.5	201.6

(出處 : "The Soviet Union's Economic Relations in Asia", Herbert S. Levine and Hewett, Soviet Foreign Trade Statistical Yearbooks.)

《 註 》

1) 자세한 것은 Scalapino and Lee, Communism in Korea, Part I 과 J.A. Kim, "Soviet Policy in North Korea", World Politics, January, 1970과 Chong-sik Lee and Ki-wan Oh, "The Russian Faction in North Korea", Asian Survey, April, 1968 및 美國務省이 1951年에 發刊에 들어가 1961年에 一般에 公開된 "North Korea : A Case Study in the Techniques of Takeover"를 參照. 그 記錄은 韓國動乱中의 脫走兵, 避難民, 戰爭捕虜들에 의해 蒐集된 情報와 美軍의 平壤 占領中에 鹵獲된 文書들에 根據하였다.

2) State Department, 85～86, Lee and Oh, Asian Survey를 參照.

3) Chin O.Chung, Pyongyang Between Peking and Moscow, 13面參照.

4) Chin, 12面參照.

5) 이 有名한 記錄으로부터의 抜萃는 Scalapino and Lee의 著書 參照. 그 記錄自體는 "社會主義陣營을 守護하자"라는 題下의 3萬字의 社說이며 1963年10月에 北韓의 党機關紙인 勞動新聞이 發表되었다.

6) Chin, 102～103面 參照. 그 社說은 "왜 그들은 平壤의 經濟세미나의 成功을 非難하는가"라는 題目으로 1964年9月7

日字의 勞動新聞에 실렸다.

7) D. Zagoria and Young Kun Kim, "North Korea and the Major Powers", William J.Barnds; Ed., The Two Koreas in East Asian Affairs, 1976을 參照.

8) Helen Louise Hunter, "North Korea and the Myth of Equidistance", Korea and World Affairs, Summer, 1980과 브루킹스研究所에서 發刊한 Donald Zagoria and Janet Zagoria, "Crises in the Korean Peninsula", in Stephen Kaplan, Mailed Fist, Velvet Glove : Soviet Armed Forces as A Political Instrument에서의 Pueblo號 및 EC-121機 事件中의 朝·蘇關係에 관한 詳細한 分析을 參照.

9) Foreign Broadcast Information Service Trends, Sept.7, 1978, 7面.

10) FBIS Trends, Aug.8, 1979, 19面.

11) 金日成의 勞動党 第6次大會에서의 演說 參照.

12) FBIS Trends, Sept.12, 1979, 16面.

13) FBIS Trends, Nov. 15, 1979, 15面.

14) FBIS Trends, Sept. 7, 1978, 7面.

15) FBIS Trends, Sept.12, 1979, 17面.

16) FBIS Trends, Oct. 3, 1979, 8面.

17) Ibid, 9面.

18)

19) Far Eastern Economic Review를 參照.

20)

21) FBIS Trends, Aug. 22, 1979, 18面.

22) Ibid.

23)

24)

25) FBIS Trends, July 16, 1980, 10面.

26)

27) FBIS Trends, Oct. 18, 1978.

28) FBIS Trends, Nov. 8, 1978.

29)

30) Richard Sneider, "Prospects for Korean Security", in Richard Solomon, ed., Asian Security in the 1980s.

第2部 : 北韓의 対日 및 対美關係

로 버 트 A·스 칼 라 피 노
(美 California 大學校 教授)

北韓의 對日 및 對美關係를 理解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北韓의 基本的 前提와 目標를 가장 넓은 次元에서 把握하는 것이 필요하다. 平壤에 있어서 第一의 優先順位는 北韓政治體制에게 韓半島의 窮極的인 支配를 위한 最大限의 機會를 賦與할 수 있는 條件下에 韓半島 統一目標를 推進하는 것이다. 北韓共産主義指導者들은 統一된 非共産主義 韓國에서 둘러리 役割을 할 意思가 없으며, 또한 聯邦制를 단지 어떤 점에서 毛澤東의 新民主主義와 本質的으로 政略的 戰術에 있어서 유사한 有機的 統一體에의 中間役 程度로만 認識하고 있다. 이러한 重要한 批判과 함께 北韓의 統一에 대한 探索은 상당한 程度로 北韓의 對內外政策을 形成하고 있다. 金日成과 여러사람들의 본래의 民族主義的 特徵과 더불어 北韓 指導者들은 韓國과 分斷된 北韓은 언제나 統一國家보다 강하지 못한 國家로 남을 것이라고 認識하고 있다.

第二의 優先順位는 北韓의 創建條件에서 不可避했던 衛星國家의 地位에서 個別 獨立國家의 地位로 轉換하려는 오랜 運動이었으며, 그것은 두強大國을 서로 다투게 하여 어부지리를 얻는 能力으로 定義된다. 北韓의 對外政策에 매번 重要目標로서 包含되는 이 目標와 關聯해서 두가지 考察을 하고자 한다. "主體(self-reliance)"와 "獨自的 外交政策"에 대한 엄청난 強調는 國際共産主義運動의 失敗에 대한 根本的으로 挑戰的 宣言이다.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와 國家消滅論 槪念은 共産主義國家의 民族主義가 登場되는 過程에서 消滅되었다. 스타린時代에 처음 나타난 이러한 民

族主義는 第2次世界大戰以後 10年동안 最高潮에 이르렀다. 실제로 많은 점에서 蘇聯을 包含한 오늘날의 共産國家들은 대부분의 非共産國家들보다 더 民族主義的이다.

게다가 金日成으로서는 蘇聯의 支配와 北韓의 內政에 대한 蘇聯과 中共의 干涉이 여전히 생생한 記憶으로 남아 있음이 틀림없다.[1] 여러 樣態로 나타나는 主體宣言 "隱遁의 王國"이라고 종종 引用되는 어구뒤에 숨겨져 있는 外國人을 싫어하고 排他的인 韓國의 傳統的인 特性에서 역시 由來한다. 그러나 韓國이 보다 世界主義的이고 世界와의 接觸을 增進하는 方向으로 나아가는 趨勢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北韓은 極度로 孤立主義的이며 排他的으로 指向하는 趨勢를 보이고 있는 것은 注目할만한 일이다.

한편 經濟的 및 政治的 理由들로 인해서 北韓의 指導部가 從來의 政策으로부터 實質的인 變更을 追求하고 있다는 조짐들이 늘어나고 있다.

第3의 優先順位는 北韓의 對外政策에서 이루어져 온 것이다. 北韓은 소위 第3世界의 承認과 支持를 獲得하고, 한편으로는 北韓의 經濟를 近代化하고 또 한편으로는 韓國의 主要同盟國들과의 關係를 損傷시키려는 目的에서 先進工業社會와 經濟的·文化的 接觸을 상당한 程度로 擴大하기 위해서 對外指向的으로 轉換하려고 努力하고 있다.

北韓의 對日 및 對美關係는 이러한 세가지의 基本的 目標에 비추어서만 把握될 수 있다. 하나의 次元에서는 앞으로 考察하는

바와같이 이러한 세가지 政策은 서로 矛盾으로 얽혀 있다. 그러나 신중하게 糾明해 보면 그 政策들은 北韓의 基本的 目的과 戰略的으로 一致한다.

먼저 北韓과 日本과의 關係過程을 살펴보자. 北韓의 對日政策은 創建當時부터 韓國戰爭以後 상당한 期間까지 60萬 在日居留民을 組織化하려는 努力과 함께 日本共産党과의 關係周邊에서 크게 맴돌고 있었다. 이러한 두가지 努力에 있어서 北韓은 몇가지 利得이 있었다. 日本社會에서 少數勢力에 不過한 日本共産党은 党序列上에 언제나 매우 有力한 韓國居留民을 두고 있었으며, 韓國問題에 대한 日本共産党의 政策은 이러한 事實을 反映하였다. 2)

게다가 第2次世界大戰동안 혹은 그 直前의 時期에 日本에 건너온 커다란 韓國人集團中 많은 수가 非熟練 혹은 半熟練 勞動者로서 徵用되어 왔으며 그들에 대한 經濟的인 側面에서 뿐만 아니라 社會的 差別待遇가 一般的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특히 在日韓國人을 위한 敎育과 같은 利益이 提供된다면 共産主義 組織內에 共産主義者들을 充員하는 것은 比較的 쉬웠다. 戰後 初期에 共産主義 組織인 "朝鮮民主守護統一戰線"(韓國民主主義를 위한 聯合戰線)이 日本에서 北韓의 主義·主張을 宣傳하기 위해서 設立되었으며 韓國戰爭동안 秘密結社가 이 組織과 기타의 類似한 組織들에 의해서 持續되었다.

1955年 5月 이 組織은 解體되고 朝總聯(在日本朝鮮人總聯合會)日本말로 조소렌에 의해서 代替되었다. 이 聯合會는 朝鮮勞動党의

直接的인 統制아래 設立되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日本은 自國의 主權아래에 있는 韓國永住權者들의 忠誠을 獲得하기 위해서 南北韓에 의해서 遂行되는 熾烈한 政治的 競爭과 더불어 지내왔다. 이러한 競爭에서 처음에는 北韓은 在日韓國人의 地位와 기꺼이 支出하는 莫大한 資金때문에 대체로 勝利하여 왔다. 그러한 勝利는 朝總聯을 약 20萬의 會員을 가진 北韓의 主義主張의 效果的 代辯者로 만들었다.[3] 그러나 후에 韓國은 원래 그 대부분은 南韓出身인 在日同胞들에 보다 많은 關心을 쏟았고 朝總聯과 거의 같은 크기로 韓國의 組織인 民團을 設立했다. 게다가 1970年代 中半에 韓國은 朝總聯의 會員中 選拔된 사람들을 韓國에 있는 祖上의 省墓와 生存한 親戚들을 訪問하도록 招請함으로써 朝總聯을 당황하게 만들었으며, 그럼으로써 南北會談에서 아직 承認되지 못한 "人道的 計劃"을 日本을 통해서 遂行했다.

日本으로서는 韓國政治의 自國領土에의 侵入은 定期的으로 發生하는 말썽꺼리이었으며 때때로 金大中 拉致의 경우처럼 주요한 國際的 反應을 불러 일으키곤 하였다. 그러나 日本의 歸化政策은 韓國人들이 쉽게 日本國民이 되지 못하도록 運營되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問題를 永久化시키고 있다.

韓國戰爭동안 北韓의 日本政府와 政策에 대한 公式的 態度는 蘇聯의 態度를 쫓아서 끊임없는 敵對의 態度이었으며, 日本은 過去의 帝國主義政策과 美國의 保護下에서 당시의 資本主義 性格때문에 非難받았다. 北韓은 日本과 公式的 關係를 樹立하기 위한 어떠한

努力도 하지 않았고 日本을 主要한 基本的 敵의 하나로 取扱하였다. 그러나 韓國戰爭 直後에 平壤은 硬直된 敵對 및 最少限의 接觸의 政策을 終熄할 用意를 보였다.[4] 1954年 3月에 日·朝貿易協會가 日·朝貿易의 發展을 위하여 東京에서 組織되었으며 1955年 2月 25日 北韓의 外相인 南日은 "우리는 世界의 모든 나라와 正常的 關係를 樹立하기를 바라며, 우선 相互利益에 相應하는 貿易 및 文化的 交流를 確立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따라서 "우리는 언제라도 日本과 貿易 및 文化交流에 관한 問題와 日·朝關係의 改善을 論意할 準備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5]

이 時期에 시작된 貿易은 매우 작은 規模이었으며 매년 千萬弗을 超過하지 못했다. 아마도 보다 重要한 것은 日本과 北韓間에 在日韓國人들을 日本에서 北韓으로 送還시키는 곤란한 問題에 관한 協商이 열린 事實이다. 때때로 신랄한 論意가 벌어졌던 長期間의 協商後에 마침내 1959年 8月에 合意에 到達했으며 韓國政府의 激烈한 反對에도 불구하고 同年 12月에 本國送還이 開始되었다.

이때까지 平壤은 日本을 美·日關係를 弱化시키고 韓·日間의 關係正常化를 沮止하는데 모든 힘을 傾注하는 과녁으로 取扱했다. 그러나 이러한 두가지 努力은 失敗로 判明되었다. 實際로 北韓은 많은 수의 韓國人들을 東京, 大阪 기타 몇몇 中心都市에서의 美·日相互安保條約의 反對示威에 參與시켰지만 日本政府에 대한 北韓의 手段은 보잘것 없는 것이었다. 日本의 北韓과의 貿易은 前述한 바와같이 重要한 것이 못되었고 文化的 關係는 韓·日接觸을 特徵

짓는 매우 강한 相互偏見으로 인해서 禁止되었다. 게다가 1950年代 後半과 1960年代 初半동안 平壤이 效果的으로 主導權을 취하는 能力은 國際共産主義關係에서 緊張이 漸增하는 理由로 어느정도 制限되었다.

北韓의 對蘇關係는 점점 惡化되었으며 후르시쵸프時代의 末期인 1964年에는 最惡의 狀態에 이르렀고 반대로 中共과의 關係는 改善되고 있었다. 그러나 여러 共産党間의 複雜한 相互關係는 北韓과 中共의 相互紐帶를 보다 不確實하고 愼重을 기하게 만들었다. 비록 처음에는 朝鮮勞動党과 日本共産党 양쪽 모두 中·蘇紛爭에 대해서 中立的 立場을 堅持했지만 결국 朝·中共間의 狀況이 朝鮮勞動党과 日本 共産党間의 關係에도 適用되게 되었다.

北韓政府는 이 時期의 中共政府처럼 자연히 日本 共産党에게와 같이 日本의 社會党에게 意志하는 傾向이 있었다. 그러나 이 政党들은 單獨으로나 聯政에 의해서나 政權을 잡을 可望이 없었으며, 1961年의 美·日相互安保條約의 更新에 대한 比較的 猛烈한 反對以後 日本에서의 左派의 影響力은 衰退하였다. 그러므로 平壤을 거의 排他的으로 日本左派와 同一視하는 傾向이 있었고 여러가지 內部不和가 日本의 左派運動을 더욱 심하게 派閥的으로 만든 國際共産主義의 分裂과 結合했던 1960年代 後半에서는 同一視하는 傾向이 더욱 심했다.

이러한 環境에서 平壤은 日本政府의 政策이 北韓의 利益을 저버리게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으며, 最初의 重大한 打擊은 1965

年 韓·日關係正常化에 의해서 가해졌다. 1960年에 李承晩이 強制로 退陣하였을때 關係正常化는 經濟的 및 政治的 論議가 널리 퍼지기도 전에 단지 時間의 問題인 것 같았고 東京과 서울간의 關係는 調整되어졌다. 平壤은 벌써 1962年부터 그 協商에 反對하며 猛烈히 鬪爭했고 北韓의 影響力이나 統制를 받는 日本內의 모든 手段을 利用하려고 하였다. 예를 들면 相當한 支出의 增加가 朝總聯 특히 敎育的 宣傳的 活動을 위하여 承認되었고, 日本內의 共産系列뿐만 아니라 社會主義者들과의 密接한 協力이 이루어졌다. 日本左派는 1965年 協定을 熱誠的으로 反對했으며, 韓·日正常化는 北韓과의 어떠한 未來의 關係도 惡化시키며 未來의 韓半島統一의 展望을 損傷시키고 未來의 韓半島戰爭에 日本을 끌어들일 염려가 있다고 主張하였다. 日本左派는 또한 日本政府의 親韓國的政策이 美國의 命令에 대한 服從을 表示하는 것이라고 非難하였다. 그러나 自民党系列의 態度는 確固했으며 韓·日關係에서 새로운 時代가 出發하였다.

이 時代의 事件들은 아마도 金日成에게 단지 朝總聯과 日本左派에만의 依存은 결코 充分하지 못하다는 것을 確信시켰다. 이 時期以前에는 日本의 事業系와 自民党要人들과 接觸하려는 약간의 努力이 있었지만 그것은 가끔 散發的으로 있은 일이었고 대체로 非效果的이었다. 1960年代 後半에 北韓은 보다 廣範圍하게 日本과의 經濟的 및 文化的 關係를 擴張하고 또한 거기에 덧붙여 政治的 接觸을 하려는 試圖를 始作하였다. 그러나 1970年代 初半에

서야 이러한 努力은 어느 程度의 새로운 結果를 보이기 시작했다. 自民党과의 關係가 항상 極度의 例外로 나타났고 北京, 하노이 및 平壤에 여러번 有用한 일을 한 우쓰노미야 토쿠마같은 親共産主義人士는 오랫동안 北韓과 보다 密接한 關係를 가질 것을 主張해 왔었으나 그는 한정된 追從者를 가졌다. 보다 重要한 發展은 1971年 11月 18日 自民党 委員인 쿠노 추지를 會長으로 하는 朝·日友好促進議員聯盟의 創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더우기 그 이듬해에 쿠노가 이끈 한 議員団이 平壤을 訪問했으며, 전하는 바에 의하면 相互利益이라는 主題에 대해서 廣範圍하게 論議했다고 한다.

한편 朝·日交易은 상당한 增加를 보이기 시작했다. 1971年에 그 交易은 단지 거의 6千萬弗에 不過하였으나, 1972年에는 1億弗以上으로 增加했으며, 1974年에는 兩國의 交易額을 합쳐 3億 6千萬弗에 달하여서 이 時期中에서 最高點에 到達하였다.[6)]

重要한 것은 이러한 急速한 貿易의 增大가 近代化와 成長計劃에 關聯하여 많은 양의 工業資材의 需要를 위하여 北韓이 對外指向的 政策을 採擇한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韓國戰爭以後에 소련과 동유럽의 援助로 建設된 北韓의 多數의 工場들은 이제 낡은 것이 되었다. 北韓에게는 不行하게도 이러한 對外指向的 計劃이 着手된 直後에 1973年의 石油危機가 엄습했으며 工業生産品의 價格은 急騰하였으며, 그래서 1974年의 貿易數値들을 價格混亂으로 인해서 過度하게 膨脹되었고, 갑자기 北韓의 經濟는 輸出能力이 制限된 狀

態에서 外債는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다. 1975 年末까지 그러한 外債는 13 億弗에서 21 億弗까지 多樣하게 評價되었으며 그 중 상당한 部分을 蘇聯과 日本에 의한 것이다. 그 結果로서 北韓은 本意아니게 外債의 支拂을 不履行하고 支拂日程의 修正을 위한 長期間의 協商을 한 最初의 共産國家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危機에 앞서서 朝·日貿易이 增加하고 있을 때 日本政府는 "두개의 韓國"政策으로 의미심장하게 가까이 接近하였다. 1974 年에 기무라外相은 "韓國은 韓半島에서 唯一한 政府가 아니며 現在 南韓에 대한 北韓의 威脅은 없고 南韓만이 아닌 韓半島 全體가 日本의 安保에 緊要하다"고 말했다.

기무라外相의 發言은 동아시아의 政治的 構成에서 重大한 變化가 일어나고 있을 때에 이루어졌다. 닉슨行政府는 中共의 신호를 쫓아서 中共과의 새로운 關係定立을 향해 急速히 接近함으로써 日本을 包含해서 世界를 놀라게 했다. 어떤 日本人들은 자신들이 美國의 對中共政策의 갑작스런 轉換에 日本이 걸려들 것이라고 항상 憂慮했었고 이제 그들의 憂慮는 正當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서 美國의 越南拋棄가 進行되는 當時에 南아시아非共産國家들은 美國은 더 이상 그 地域에서 重要한 存在가 아니라고 確信했다. 韓半島 自體에서는 이러한 一連의 事件들이 1972 年 7月 4日의 極的인 共同聲明에 따른 南北會談의 開催를 刺戟했었다. 따라서 日本이 "두개의 韓國"政策을 採擇할 準備가 되어 있는 듯한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日本內部에서는 어떤 基本的 問題들에 대한 論爭이 기무라外相의 發表에도 不拘하고 擴散되고 있었다. 어느 程度로 韓國의 安保가 日本의 安保에 緊要한가? (平和的 統一이 가까운 將來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眞摯하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특히 베트남, 캄보디아 및 라오스에서의 事態發展에 비추어 北韓으로부터의 威脅의 程度는 어떠한가? 그리고 그 威脅의 本質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豫想과는 反對로 세가지 問題에 대한 完全한 合意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동안 日本의 對北韓政策은 약간의 進展에도 不拘하고 1970年代 後半내내 여전히 愼重하고 制限的이었다. 經濟關係는 특히 이 時期의 끝무렵에 增加를 보였다. 양쪽의 交易額을 합쳐서 1977年에는 1億9千2百萬弗로 衰退하였으나 1978年에는 2億9千萬弗로 上昇했고, 1979年에는 4億4千6百萬弗로 最高點에 到達하였으며, 1980年에는 9月末까지 4億2千3百萬弗을 記錄함으로써 5億弗以上에 달할 것이 展望된다.[7]

이러한 貿易에서 日本의 對北韓輸出이 일관하여 收入을 상당히 超過하는 것은 注目할만 하며, 또한 日·朝交易이 韓·日交易에 비하면 매우 적다는 것도 注目할 價値가 있다. 韓·日間의 交易額의 合計는 1972年에 38億4千2百萬弗이었으나 1978年에는 57億3千3百萬弗로 1979年에는 68億4千3百萬弗로 껑충 뛰었고, 1980년의 數値는 韓國의 經濟的 어려움으로 인해서 약간 增加할 것으로 豫想되는 속에 아마도 70億弗은 超過할 것 같다.[8] 따라서

北韓의 對日貿易은 韓國에 비하면 約 7～8%에 不過하다. 물론 만약 北韓이 對外指向的 經濟政策을 追求한다면 北韓의 對日貿易은 向後 상당히 增加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理由들로 인해서 韓國의 對日貿易에는 절대로 가까와 질 수 없을 것이며 北韓에 대한 日本의 投資展望은 적어도 現在의 狀況에서는 아주 희박하다.

日本은 韓國에 대한 巨大한 經濟的 利害關係 以外에도 政治的 및 安保的 理由들로 인해서 北韓과의 完全한 關係正常化를 指向하는 것은 制限된다. 日·蘇關係가 繼續해서 敵對關係로서 特徵되어지고 日本의 近接地에서 蘇聯의 軍事力이 增大됨에 따라 日本은 또한 자신의 同盟國인 美國과 蘇聯間의 關係에 存在하는 날카로운 惡化를 目擊하였고, 동시에 카터行政府가 보낸 初期의 信號들은 混同되었다. 어떤 信號들은 亜細亜·太平洋地域에서 美軍의 減縮을 指摘하는 것 같았고, 發表된 駐韓美軍撤收政策은 美國이 하노이와 承認에 관한 協商을 하는데 執着하는 것과 함께 美國의 政策과 態度를 豫見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런 狀況에서 日本의 指導者들은 韓國의 士氣를 더 이상 損傷시킬 이니시에이티브를 취하는 것을 꺼려하게 되었다.

根本的으로 日本의 基本的인 對韓半島政策에는 變化가 없다. 東京의 長期的 目標는 "두개의 韓國"政策이며 그것은 美國뿐만 아니라 蘇聯 및 中共도 交叉承認하기를 바라는 政策이다. 비록 1970年代 初盤의 經驗이 日本 事業系로 하여금 매우 愼重한 態

度를 갖게 하였지만, 交易과 其他의 經濟的 交流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平壤도 苦待하는 것일 것이다. 北韓의 過去의 外債는 아직도 償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1979年에 日本의 官吏들은 經濟關係를 容易하게 하기 위해서 東京과 平壤에 貿易事務所를 設置할 豫定임을 暗示했고 이런 用途의 支出이 豫算에 包含됐다. 그러한 "非政府的"事務所는 日本과 台灣間에 維持되는 貿易事務所에 該當하는 것이었다.

같은 時期에 日本은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의 公式承認을 향한 急速한 또는 一方的인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政治·文化的 關係의 注目할만한 격상조차도 보이지 않고 있다. 1980年에 쿠노가 다시 議長이 된 日·朝友好促進議員聯盟을 包含한 많은 日本의 使節團이 北韓을 訪問했다. 여기서 日·朝漁業協力協定의 更新에 관한 協商이 可能했다. 그러나 1980年 봄에 日本共産党의 第15次 全党大會에 參席코자 하는 朝鮮勞動党의 試圖가 日本은 北韓과 外交關係가 없기 때문에 北韓의 어떠한 團體도 政治的 會合에 參席하기 위해 日本에 入國할 수 없다는 法務省의 發表로 인해서 封鎖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日本은 金大中問題로 發端된 韓國과의 緊張과 韓國에 지나치게 不利한 貿易不均衡의 어려운 問題에도 不拘하고 韓國의 軍事當局과 非公式的 安保接觸을 維持·擴張하려는 用意를 보였다. 실제 日本은 非公式的이지만 重要한 意味를 가진 두개의 安保關係를 指向하는 것 같다. 하나는 日本·美國 및 韓國

으로 構成된 三角關係이며 다른 하나는 日本·美國 및 中共의 三角關係이다. 그러나 分明한 理由들로 인해서 이 두개의 環은 각각 分離되었고 對外的인 具體化에 있어서는 論議와 相互協議를 벗어나지 못했다. 現在 日本이 完全한 意味에서 積極的인 地域安保役割을 遂行할 수 있도록 政治的 혹은 軍事的 措置를 취하려고 한다는 조짐은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安保發展은 平壤과 모스크바의 重要한 關心이 되고 있다.

참으로 平壤의 딜렘마는 과거 몇년동안 鋭敏하게 暴露되었다.

金日成은 日本에 接近코자 하는 北韓의 努力을 倍加시키는 한편, 1980年 9月 24日의 아사이新聞 記者들과의 會見에서 金日成은 그가 經濟的 關係뿐만 아니라 政治的, 文化的 關係로까지 擴大하는 日本과의 廣範圍한 交流計劃을 바라고 있다는 점을 明白히 하였으며, 平壤은 日本이 韓國과의 政治的 關係를 修正할 必要없이 北韓과 日本間에 連絡事務所를 設置하는 것을 許容할 것이라는 점을 暗示하였다.[9] 要約해서 말하면 金日成은 그 자신이 아무리 "두개의 韓國"概念을 基本的으로 否定하고 蘇聯과 中共이 그 概念을 採擇하지 못하도록 아무리 열심히 鬪爭하더라도 日本에 대해서는 "두개의 韓國"方式을 容認할 準備가 되어 있었다.

동시에 金日成과 餘他의 많은 北韓의 代辯者들은 日本과 美國 및 韓國이 安保分野에서 分明히 協力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漸增하는 憂慮를 表明해 왔다. 그들은 물론 美·日協同을 오랫동안 攻擊하였으나 그들의 見地에서 새로운 暗雲은 美·日의 韓國과의

相互接觸이다. 日本과 韓國의 安保擔當者들의 非公式的 論議는 北韓을 속일 수가 없었다. 最近에 主要한 北韓機關들은 警戒할 새로운 理由들을 밝히고 있다. 1981年 1月 9日에 勞動新聞은 "邪惡한 侵略計劃"題下의 記名 論評에서 "日本 반동들이 日本의 軍需會社를 통해서 요몇년동안 남조선에 상당한 양의 곡사포와 박격포 포신 및 其他의 銃器部品을 輸送하고 技術的인 重武器의 製造圖面을 讓渡하였다"고 攻擊하였다.[10]

그 北韓의 社說解說家는 이러한 行動이 "日本이 南朝鮮에 軍事的 浸透를 뻗히고 있으며, 日本의 도움으로 南朝鮮의 傀儡徒党은 戰爭과 파시즘 특히 北朝鮮에 대한 冒險的인 軍事挑發로 보다 다가가도록 鼓舞되고 있다는 것을 證明한다"고 主張하였다. 그 記事는 日本의 軍事的 發展에 관한 概說로 끝맺으면서 "日本의 반동들이 자신들의 海外膨脹의 野望을 實現할 萬般의 準備를 하고 있으며"심지어 自衛隊를 海外派送을 하려 한다고 非難하였다.[11]

日本이 美國과의 共同防衛計劃과 戰爭練習에 參與하고 있으며 보다 最近에는 韓·美戰爭練習에 間接的으로 參與하고 있다는 非難은 결코 새로운 것은 못되지만 倍加되었다. 平壤新聞은 1981年 봄으로 計劃된 韓·美 "팀스피리트 81"訓練에 관하여 言及하면서 "日本이 그 訓練에 基地를 提供하고 駐日美軍이 參與하기 때문에 그것은 韓半島에서의 새로운 戰爭을 위한 美帝의 準備에 日本이 直接的으로 參與하고 있음을 證明하는 것"이라고 主張하였다.[12]

日本의 軍國主義에 대한 北韓의 非難과는 對照的으로 北韓의 代辯者들은 비록 처음에는 主要한 攻擊目標이었지만 지금은 좀처럼 日本의 韓國과의 經濟的 交流의 問題를 擧論하지 않는다. 日本은 經濟的 帝國主義를 試圖하고 있다고 非難되었으며 韓國의 頹廢助長에서부터 韓國의 主權買收에 이르기까지 모든 多血症的인 罪는 日本의 탓으로 돌려졌다. 平壤이 이러한 非難을 無謀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는 없다. 그러나 北韓이 日本과 급속한 經濟的 交流의 擴大를 希望하는 時期에 있어서는 그러한 非難은 狀況에 맞지 않는다.

要約해서 말하면 金日成은 對日關係에서 基本的인 戰略的 目標는 그대로 留保하면서 어느정도 戰術的 伸縮性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틀림없다. 金日成은 韓國에서 政治的·社會的 大變動이나 日本에서의 極的인 政權交替가 없는 한 日本은 韓國과의 政治的 및 經濟的 關係를 斷切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韓·日間에 最近에 擡頭된, 대체로 完璧하게 計劃된 것 같은 金大中問題에 관한 對立에 있어서 먼저 看過한 것은 日本이었다. 스즈끼首相은 韓國의 微妙한 內部의 政治的 狀況을 意識하면서 反日攻擊에 愼重하게 對應했고 두國家間의 密接한 紐帶의 重要性을 反復해서 強調하였다. 따라서 金日成의 當面 目的은 日本으로 하여금 "等距離" 政策을 追求케 하는 것이며 窮極的으로는 承認으로 發展하기를 希望하는 密接한 經濟的 및 文化的 關係를 確保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指摘했듯이 이것은 "두개의 韓國"政策의 承認이다.

北韓은 國際的으로 約 50餘個國에서 南韓과 함께 同時承認을 받고 있다. 承認을 選擇하지 않고 있는 蘇聯이나 中共은 北韓만 支持하는 立場에서는 共通的이다. 즉, 資本主義의 分裂이 利用되는 반면에 韓國政府에 대한 "社會主義 紐帶"는 完全하게 持續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日本의 境遇, 이러한 要求가 민감한 保守勢力과 左派에 대한 北韓의 耕略을 繼續케 하였다. 左派구룹中에도 日本의 社會党이 요몇년동안은 共産党보다 더 有用했다. 社會党은 "等距離"政策에 아낌없는 支持를 주고 北韓의 立場의 代辯人 노릇을 하였다. 더 나아가 社會党은 國際共産主義關係에 대해서 日本共産党에게 責任을 미루는 일이 없었다. 1966年 越盟을 支持하는 聯合戰線問題에 대해서 日本共産党과 中共共産党間에 날카로운 分裂이 있은 直後 北韓과 中共과의 關係도 역시 惡化되었다. 文化革命의 絶頂期에 金日成은 北京 急進派에 의해서 個人的으로 攻擊을 받았고 그 結果 다른 問題들이 發生하였다. 그러나 1970年代 初盤 朝鮮勞動党과 中共共産党間에는 友好가 回復되었고 그 時期에는 北韓의 對中共傾斜가 明白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日本共産党과 中共共産党의 關係에서는 이러한 現象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는 隔意가 있은 이후에 蘇聯共産党과의 關係를 어느 程度 改善하였으나 中共과의 關係는 여전히 冷却關係를 維持하였다.

日本에서의 平壤의 主要 代辯者는 여전히 朝總聯이다. 北韓의 對朝總聯 補助金은 1960年代 中盤까지는 每年 10億엔을 웃돌았고 전하는 바에 의하면 1971年까지는 15億엔으로 增加하였다.[13]

親平壤系 韓國人들이 日本에서 자신들의 大學을 設立할 權利가 있느냐하는 問題따위는 平壤과 日本間에 政治界 內에서 열띤 論爭을 불러 일으켰다.

누구나 北韓의 對日關係는 다음과 같이 要約한다. 北韓은 日本政府에 대하여 非難을 퍼붓는 동시에 接近을 試圖하고 있다. 한편으로 日本의 主要指導者들은 韓半島와 東亜細亜 全域에서 戰爭의 危險을 高潮시키며 "美國 帝國主義"와 密接하게 同盟關係를 維持하는 "反動들"이며 "軍國主義者들"이라고 攻擊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中共이 10年前에 追求했던 것과 同一한 方法으로 現 保守與党의 派閥에 影響을 미치기를 試圖하면서 日本政府의 承認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사실 오늘날의 北韓의 對日政策과 1960年代 後盤과 1970年代 初盤의 中共의 對日政策間에는 類似性이 明白하며 이것은 우연한 一致가 아니다. 成功은 模倣을 낳는 法이다.

平壤과 日本左派 특히 社會党과의 相互作用은 결코 縮小되지 않았다. 그러나 北韓指導者들은 豫見可能한 未來의 어느 때에서는 結局 日本이 民族主義 勢力이 된 北韓의 理念的 同志들에게 依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北韓指導者들은 점차 穩健的 態度로 바꾸어 聯合戰線을 構築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日本에 대해서는 두개의 韓國政策을 受諾할 準備가 되어 있으며 특히 外債不履行의 衝擊이 지나가고 經濟的 交流가 增加一路에 있는 時點에서 그러한 政策이 東京에서 더욱 歡迎될 것이라고 確信한다.

그러면 日本은 어떻게 對應할 것인가? 過去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많은 日本指導者들은 "두개의 韓國"政策을 支持하며 가까운 將來에 平和統一의 可能性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現狀固定을 秩序化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交叉承認과 유엔 同時加入을 支持한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韓國問題에 관해 美·日間의 密着된 協同政策을 통해 最大限의 協力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希望하고 있다.

韓國이나 北韓 모두 日本國民에게 好評을 받지 못하며 여러 深刻한 實質問題와 함께 民族的 偏見은 日本의 對北韓關係뿐만 아니라 對韓國政策도 複雜하게 한다. 日本의 韓國과의 經濟的 및 文化的 關係가 巨大한 反面에 日本에 有利한 貿易不均衡은 台灣에서와 같이 重要한 問題가 되었다. 그리고 앞에서도 指摘했듯이 金大中問題는 日本에서 廣範圍한 抗議를 惹起시켰으며 日本政府가 意思를 밝히기를 強要당하고 있다. 또한 反對로 韓國에서 韓國의 民族主義性向을 例證하는 抗議의 물결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마지막 分析으로, 과거 5年間의 事件들은 日本으로 하여금 東北亜細亜의 安保問題를 보다 意識하게 만들었으며 韓國에서의 어떠한 政治的 및 經濟的 狀況의 變化도 苦待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1975年 11月에 미야자와外相은 "北韓은 美·日安保條約에서의 極東의 定義에 包含되지 않는다"고 宣言함으로써 새로운 어떠한 戰爭에서도 美國의 飛行機가 日本으로부터 直接 北韓을 攻擊하는 것을 許容할 수 없다는 것을 示唆하였다.[14] 一部의 日本사람들은, 특히 左派分子들은 비록 韓半島 全體가 共産化된다고 하더라

도 日本에 威脅이 되지 않는다고 繼續 主張하며 또한 그들은 日本은 蘇聯과 함께 살고 있으며 蘇聯이 더 큰 問題이고, 中共처럼 共産化된 韓國은 先進技術과 광대한 市場을 必要로 한다고 主張한다. 그러나 이러한 見解는 現在의 日本의 政治界에서는 少數의 見解이며 現在 實行되고 있는 日本政策에 逆行하는 것이다. 日本이 繼續 政經分離政策에 魅力을 느끼고 있는 限 두개의 韓國과의 交易 및 經濟的 交流를 增大시키고자 하는 槪念은 強力한 說得力을 갖게 되며, 日本 역시 過去보다 훨씬 더 큰 東北亜細亜 地域에서의 政治的·戰略的 役割을 遂行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考慮에다 南北韓의 經濟展望에서 나타나는 심한 不均衡이 添加될때는 비록 金日成이 現在 要望하고 있는 "두개의 韓國"接近論이 實現된다 하더라도 北韓은 日本의 對韓半島政策에서 副次的 位置에 놓이게 될 可能性이 여전히 크다.

이제 다음부터는 北韓의 對美政策으로 方向을 돌려보자. 이 경우에 누구나 日本에 대해서 採擇한 것과 基本的으로 同一한 戰略과 부딪치게 된다. 한편으로 美國의 政策과 指導者들은 北韓의 主張에서 흔해빠진 높은 소리로 誹謗되어 지며, 다른 한편으로 平壤은 오랫동안 여러 形態로 美國으로부터 承認을 얻기 위해 努力해 왔다. 現在 北韓의 指導者들은 유럽 共産國家들과 IREX (International Research and Exchanges Board) 交流에서 一般的으로 通用되는 規定과 대체로 類似한 基盤위에서 美國과 經濟的 交流와 非公式的 文化關係를 增大시키기를 眞心으로 원하고 있다.

北韓과 美國間의 初期의 關係에 관해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必要한 背景知識을 가져보도록 하자. 北韓은 韓國과 마찬가지로 두 責任있는 強大國(美國과 蘇聯) 혹은 韓國과 北韓의 同盟國들이 韓國의 統一方式에 合意하지 못한 無能力때문에 創建되었다. 실로 競爭的인 雙方의 見解는 지난 30年동안에도 基本的으로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모든 政党,團體 및 社會階級"을 代表하는 民族會議의 産物인 聯邦制의 概念은 1946年以來 共産主義의 立場이었으며 北韓의 單一體制主義와 韓國의 複數體制主義를 싸움붙이는 것은 平壤의 觀點에서는 항상 理想的인 戰略이었다.

韓半島가 平和的으로 統一될 수 없었기 때문에 金日成은 1950年 여름에 獨自的인 解決方法을 摸索하였으며, 蘇聯과 中共의 支援을 받으면서 美國이 介入할 것 같지 않다는 假定下에 불과 2～3週內에 南韓을 解放시킬 것이라는 希望속에 6月25日 南韓을 侵入했다. 그 計劃은 失敗했고 만약 中共이 없었더라면 金日成의 政治的 經歷은 적어도 北韓의 政治指導者로서는 이때에 終末을 맞았을 것이다. 믿을 수 없는 것은 韓國戰爭에 관해서 꾸준히 전해내려오는 北韓의 神話이다. 그 神話는 잘 알려진 바와같이 "美帝와 南朝鮮傀儡"가 戰爭을 開始하였으며, 北韓人民들의 英雄的인 抵抗으로 侵略者들에게 莫大한 打擊을 가했고, 美國은 北韓과 北韓의 戰友인 中共이 提示한 休戰을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는 命題에 基礎하고 있다. 따라서 韓國戰爭은 美國의 侵略을 挫折시킨 共産主義의 커다란 勝利로 描寫되고 있다.

얼마나 많은 北韓指導者들이 이러한 神話를 믿는지는 確實히 알

수 없다. 후르시쵸프 回顧録이 분명히 하는 바처럼 蘇聯의 高位指導者들은 그것을 확실히 믿지않고 있으며 中共의 高位指導者들도 그 宣傳이 北京에서 나온 것임에도 不拘하고 믿는 지는 알 수 없다.

여하튼 韓國戰爭과 그 餘波는 20年 이상동안 北韓과 美國間에 어떠한 意味있는 接觸도 미리 排除하였다. 그러나 1970年代 初에 發生한 事件들은 南北韓關係에 影響을 미치기 始作했으며, 이것은 反對로 北韓의 對美接觸을 招來했다. 1972年 7月 4日의 共同声明에서 統一會談의 基礎가 確立되었던 것으로 보였다.[15] 北韓의 한 目的은 오랫동안 유엔(사실상 美國)의 韓半島에 대한 어떠한 介入도 排除하는 것이었다. 統一은 어떠한 外部의 介入이나 關與없이 韓半島의 自主的인 努力을 통해서만 達成되어야만 한다고 明文化함으로써 北韓은 이러한 目標를 達成했었던 것 같았고, 그 댓가로 北韓은 統一의 追求에 平和的 手段만을 使用한다고 誓約하였다. 그러나 잘 알려진 바와같이 그 후의 會談에서는 아무런 合意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北韓은 당시의 7.4共同声明을 가지고 韓半島에서 유엔과 美軍이 退却할 것을 열심히 強調했다. 共産國家와 一部의 第3世界國家들의 支持를 바탕으로 北韓은 이러한 趣旨의 決議案을 每年 유엔總會에 上程했다.

同時에 北韓은 1974年 3月에 새로운 接近을 開始하여 休戰協定을 平和條約으로 代替하기 위하여 韓國의 參與없이 北韓과 美國間에 直接 協商을 벌일 것을 提議하는 편지를 美國議會에 보냈다.

사실상 어느 쪽에 의한 宣戰布告도 없었기 때문에 平和條約은 必要한 것 같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不拘하고 休戰協定은 敵對의 中止를 가져왔었다. 그러나 北韓의 目的은 分明했다. 판문점 以外에서 美國과 公式的으로 接觸하려는 運動은 이러한 일련의 環境속에서 始作되었다. 즉 새로운 美·中共關係, 經濟的 및 政治的 支援을 外部로부터 얻기 위한 北韓의 對外指向的 決定, 그에 相應하는 새로운 對日 이니시에이티브 및 서울에서 獨裁主義가 增大하는 狀況에서 韓·美關係에 쐐기를 박으려는 기대등이 그것이었다. 그보다 앞서 少數의 非共産 白人 美國 言論人들이 平壤에 招請되었다. 그 전에는 다만 韓國系 美國人만의 訪問이 許容되었었다.

平壤에서 나온 提議는 두개의 會談에 관한 것이다. 즉 美國과 平和條約에 관해서 討議하려는 雙務會談과 統一問題에 관해서 韓國과 벌이려는 雙務會談이다. 그러나 이러한 努力들은 成功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1974年 11月에 國務省 次官補 하비브는 美國은 交叉承認 즉 美國이 北韓을 承認하고 그 갯가로 蘇聯과 中共이 韓國을 承認하는 한에 있어서 기꺼이 參與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끼 日本首相은 1975년 3月 1日에 日本이 堅持하고 있는 위와 類似한 立場의 大要를 말했다. 동시에 당시 發表된 美·日의 立場은 窮極的인 韓半島 統一에 障碍가 되지 않는 南北韓의 유엔 同時加入과 또한 韓半島 問題에 대한 4強會談의 開始를 要求하였다.

金日成에게는 이러한 立場은 禁物이었으며 北韓의 代辯者들은 그

들이 "두개의 韓國陰謀"라고 斷定한 모든 것을 粉砕하는 데에 全力을 傾注하기 始作했으며, 北韓當局은 第3世界와의 接觸을 擴大하여 漸進的으로 韓國을 孤立化시키고 蘇聯과 中共을 자신들의 範圍內에 끌여 들여서 中·蘇의 競爭意識을 利用함으로써 어느 일방이라도 美·日의 方式을 贊成하는 것을 沮止하려고 試圖했다. 이러한 努力에서 北韓은 약간의 成功을 거두는 한편 약간의 失敗도 맛보았다. 그러나 아이로니칼하게도 그 成功은 大體的으로 "두개의 韓國"槪念을 沮止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를 促進시켰다. 앞서 指摘했듯이 北韓은 非共産國家들로부터의 南北韓 同時承認을 認定했고, 그러한 狀況은 1970年代 初盤까지는 거의 50餘個國에서 나타났다. 또한 北韓은 유엔傘下機關에서 韓國과 함께 자리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럼으로서 北韓의 同時加入反對는 공허한 것이 되었다.

그러나 南北會談에서는 여전히 立場이 명확히 對立되었다. 強大國들에 의한 交叉承認과 유엔에서의 2重的 代表權은 韓半島의 分裂을 永久化하려는 "美帝와 서울의 파시스트傀儡勢力"에 의한 絶對的으로 容認할 수 없는 陰謀라고 規定했다. 게다가 統一은 특히 金日成의 베트콩식의 放送機構인 統一革命党에서는 "解放"으로 자주 混同되었다.[16)]

따라서 1970年代 中盤까지는 北韓의 對美關係는 여전히 基本的으로는 變更되지 않았다. 게다가 1976年 8月 18日에 두명의 美軍兵士가 共同監視區域에서 北韓의 軍人들에 의해서 도끼로 殺害

되었으며, 이 事件은 이러한 경우에 美國의 힘을 과시하고 美國의 公約이 틀림없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努力으로서 艦艇과 航空機가 韓半島에 出擊하는 또 다른 事件을 招來하였다.[17] 그리고 金日成이 도끼殺害에 대해 반정도의 사과를 하는 동안 美國에 대해 가한 그 후의 攻擊은 어떠한 自制도 하지않고 있다는 事實을 分明히 보여주었다. "殘虐한 罪惡行爲와 파시스트적 強壓"은 "美帝"에 의해서 南朝鮮人民들에게 가해지고 있으며, 南朝鮮과 日本의 人民들이 世界의 憤怒한 人民들과 提携해서 "美帝의 侵略과 內政干涉"에 抗拒하는 共同鬪爭을 遂行할 때에만 美國은 韓半島에서 쫓겨날 것이다.[18]

北韓은 美國과 韓國軍側에서 大規模的으로 수많이 休戰協定을 違反하고 있다고 主張함으로써 여러 國際的 背景에서의 反美主張을 強化하기를 試圖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을 考慮해 볼때 도끼殺害는 北韓의 主張을 損傷시켰다. 蘇聯이나 中共의 어느 쪽도 이 問題에 대해서 平壤에 대한 明白한 支持를 주지 않았으며, 一般的으로 親平壤的이었던 國家를 包含해서 수많은 第3世界國家들은 沈默을 지키거나 아니면 어느 程度의 不滿을 토로하였다. 매년 유엔總會에 上程되던 親北韓的 決議案은 분명히 그전과 같은 水準의 支持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1976年 9月에 撤回되었다.

그러나 1977年에 美國에 관한 北韓의 批評들은 어느 程度의 愼重을 보였으며, 이것은 金日成과 그의 同僚들이 카터行政府의 撤

軍開始에 滿足하였다는 事實을 反映하였다. 美國의 撤收決定은 비록 처음에는 北韓의 消息通들은 撤軍計劃이 너무 長期間 끌면, 軍事援助가 서울에 계속될 것이라는 것과 워싱턴의 새로운 카터行政府가 平和條約에 관한 雙務會談에 대한 北韓의 오랫동안의 提議에 應答을 하지 않고 있다고 不滿을 토로하기 始作했지만 당연히 好意的인 注意를 받았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金日成은 르몽드紙와의 6月 20日의 會見에서 만약 워싱턴이 北韓에 대한 非友好的인 態度와 敵對政策을 中斷한다면 友好關係가 確立될 수 있음을 示唆하였다.[19] 가을에 北韓의 허담外相은 유엔에 와서 美國官吏들과의 會談을 希望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때쯤은 카터行政府는 이미 撤軍決定에 대해서 여러 方向에서 상당한 試鍊을 받아온 結果로 同行政府는 韓國의 參與없이는 北韓과의 會談이 開催될 수 없다고 主張하였다. 따라서 1977年이 끝나갈 무렵 平壤은 다시 美國이 韓國에 核武器 配置를 準備하고 있다고 攻擊하였다. 이 時期와 그 이후로 높은 重要性이 賦與됐던 韓·美共同軍事訓練은 北韓의 不幸을 加重시켰다.

1970年代가 지나갈 무렵 北韓은 자신이 歷史上의 어느 때보다 더욱 複雜한 狀況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으로 소위 非同盟會議에의 加入을 確保하려는 全力傾注는 豫想보다 빨리 達成되었었고, 北韓은 당시 소위 第3世界의 거의 모든 國家를 包含해서 約 140餘國家들로부터 承認을 얻었다. 그러나 韓國을 孤立化시키려는 全力傾注는 達成되지 못했었고 非同盟會議 自體內에서도

離合集散은 이제 一般的인 것으로 되었었다. 한편 韓國의 經濟的 急成長과 軍事力의 發展은 단지 一個國家로서만이 아니라 中進勢力國家로서 對外的으로도 經濟的 影響力을 發揮할 수 있는 國家로서 認定받게 되었다. 이점에서 北韓보다 현격한 差異가 있게 되었다. 동시에 北韓의 蘇聯 및 中共과의 關係는 보다 어려운 狀況에 처하게 되었고 앞을 豫測할 수 없게 되었다. 蘇聯의 膨脹主義와 中共의 實用主義는 각각 그들 나름대로 北韓에 壓力을 가했다. 비록 1978年 以來 增加하는 蘇聯의 提議는 條件附로 받아들였지만 이전의 中共傾斜는 점점 挑戰받게 되었다.

이런 狀況에서 北韓은 基本的인 問題에서는 물러서지 않으면서 "美國問題"에 대한 새로운 接近을 計劃했다. 자신의 提議를 緩和하려는 努力으로 金日成은 韓國이 雙務的인 北韓·美國의 平和條約會談에서 업저버 地位를 가질 수 있음을 示唆했으며 또한 駐韓美軍撤收가 그러한 會談의 先行條件이 아니라고 말했다. 美國과 韓國은 1979年 여름에 카터大統領이 韓國을 公式訪問할 동안 카터大統領과 朴正熙大統領에 의해서 提議된 3者會談提議로 되받아쳤다. 7月 10日에 北韓은 反應을 보였는데 平壤으로서는 두 個別的인 問題는 平和條約과 統一問題에 包含되며 각각의 別途의 會談을 要求한다는 理由로 카터-朴 提議를 "完全히 實行不可能한 것"이라고 拒否하였다.[20]

1980年代初에 韓國과 美國 모두의 새로운 政府의 出帆으로 인해서 對峙되는 立場은 보다 날카로와진 것으로 보였다. 당연히 朴大統領의 暗殺과 全斗煥將軍의 政府 出帆을 包含한 韓國內의 그후의 事件들은 北韓으로 하여금 關心을 갖고 지켜보게 하였으며 平壤이 韓國內의 그러한 趨勢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깨달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北韓의 代弁者들은 韓國의 새 政府와의 協商을 拒否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모든 手段을 통해서 새 政府를 顚覆할 것을 主張하였으며, 光州事態와 金大中問題를 最大限으로 利用하려 하였고 美國과 韓國을 함께 連繫시켜서 워싱턴은 韓國에서의 "地獄같은 狀況"에 責任이 있다고 主張하였다. 다음의 文句들은 通常的으로 追跡되는 소리높은 攻擊을 나타내고 있다.

"南朝鮮 支配者들은 韓半島 全體 人民과 世界 人民들로부터 커다랗게 울려나오는 抗議와 告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만 한다. 그러나 파시스트 殺人魔들은 內外輿論의 異口同聲의 要求에 拒逆하면서 '主權侵害'와 '內政干涉'을 소리높여 非難하고 있다"

"國土의 반을 外部侵略者들의 支配에 맡기고 총칼로 수천명의 同胞를 大量虐殺하며 美國의 '두개의 韓國'政策을 追從하여 民族分斷의 永久化를 劃策하고 있는 獨裁者들이 어떻게 뻔뻔스럽게 主權과 內政에 관해서 論議할 수 있는가? 만약 南朝鮮 軍事徒党들이 진실로 主權侵害와 內政干涉에 관하여 論議하기를 원한다면 武力으로 韓國을 強占하여 植民支配를 恣行하며 民族이 主權과 尊嚴

을 짓밟고 있는 美帝에 의한 侵略과 內政干涉에 관하여 論議하여야 한다……"

"獨裁者 全斗煥의 政權 強奪과 民族의 殺人場化를 支援했던 美國은 現在의 심각한 段階에 있는 金大中 殺害陰謀에 대해서 全的으로 責任이 있다" 21)

더우기 앞서 指摘했듯이 平壤은 現在 經濟的 含蓄뿐만 아니라 戰略的 含蓄을 지닌 美·日·韓國協約의 出現의 可能性에 漸增하는 憂慮를 갖고 있다. 따라서 北韓의 代弁者들은 記錄된 事件들중에서 韓·美 挑發에 의한 增加하는 戰爭의 危險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크게 強調하고 있다. 1980年12月의 "SR-71 諜報機"에 의한 領空侵入에 대한 報道에서 北韓의 라디오放送은 "우리 人民은 높은 警戒心을 가지고 美帝侵略者들이 諜報機를 우리 領海上空 깊숙히 浸透시킴으로써 끊임없이 諜報活動을 恣行하면서 促進시키고 있는 戰爭準備를 監視하고 있다. 美國은 만약 美國이 우리의 거듭되는 警告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戰爭挑發 行爲를 한다면 그로부터 發生하는 모든 結果에 全的으로 責任을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22)

1980年10月에 豫想外로 빨리 開催된 第6次 最高人民會議에서 金日成을 包含한 여러 北韓의 指導者들은 같은 主題에 대해서 猛烈한 攻擊을 퍼부었다. 예를 들면 吳極烈將軍은 10月12日에 報告하면서 "美帝國主義者들은 우리나라를 侵略하기 위해서 狂乱的으로 새로운 戰爭準備를 加速化시키고 있다. 日本 反動들은 소위 西

部日本의 戰略的 重要性에 관하여 떠들어대면서 西部日本에 配置된 自衛隊를 強化하고 美帝國主義者들의 使嗾아래 自衛隊의 作戰運營態勢를 改編하고 있다……"

"우리는 南朝鮮에서의 美帝國主義者들의 撤收를 위해서 굽히지 않고 계속 鬪爭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美帝國主義者들과 그들의 꼭두각시에 의한 새로운 戰爭挑發計劃을 粉碎하고 祖國의 自主的이고 平和的인 統一을 반드시 達成할 것이다"라고 主張하였다.[23)]

한편 全斗煥政府는 자신들에 대한 非難을 一蹴하면서 北韓에 대해서 公開的으로 愼重한 立場을 취하였으며 南北會談의 再開를 主張하였다. 全斗煥大統領은 또한 金日成이 서울을 기꺼이 訪問할 수 있도록 그의 安全에 대한 保障을 盟誓하면서 金日成에게 會談을 위한 招請을 提議하였다. 새로운 韓國政府 指導者가 金日成을 金日成主席이라고 呼稱한 것 또한 注目할 만한 일이다.

1981年이 시작될 무렵 레이건行政府가 韓國을 包含한 美國의 同盟들과의 關係를 政策의 根幹으로 삼을 것을 公約했다는 분명한 證據가 強力하게 提示되었다. 行政府 代弁人은 美國이 政治的으로 戰略的으로 同盟關係에 있는 國家들에 대해서 美國式으로 解釋된 人權에 카터行政府와 동일한 優先順位를 賦與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金大中의 死刑執行이 韓·美關係에 問題를 惹起시킬 것이 분명함에도 레이건行政府는 이 問題를 대체로 私的인 問題로 取扱하였다. 金大中에 대한 減刑을 條件으로 레이건大統領은 全斗煥大統領을 워싱턴으로 기꺼이 招請하였으며 그럼으로써 全斗煥大統

領의 立場을 內外에 걸쳐 強化시킨 것이 분명한 것 같다.

그러므로 表面的으로는 韓·美關係를 離間시키려는 北韓의 努力은 繼續 失敗한 것으로 보였고, 그러한 失敗 때문에 平壤은 다시 強硬한 立場으로 轉換한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離間시키려는 努力과 어떤 形態로든 美國으로부터 公式的 承認을 獲得하려는 努力의 後退당했을 때조차도 金日成과 그의 同僚들은 可能性있는 擴大될 文化關係의 開始를 계속 追求했다. 美國·北韓의 關係가 惡化되었었던 1979年에서도 平壤은 北京式의 핑퐁外交에 관심이 있음을 암시하였다. 國際卓球競技에 關聯하여 美國의 卓球팀은 상당한 수의 美國 報道陣들과 함께 平壤에 招請되었다. 이것과 동일한 時期에 몇몇 美國의 議員들은 北韓을 訪問하도록 招請되었으며 1980年 봄에 스테판 솔라즈議員은 이러한 招請을 受諾하였다.

솔라즈議員의 訪問은 北韓의 媒體에 의해서 매우 平凡하게 取扱되었지만[24], 그는 金日成과 長時間의 面談을 할 수 있었다. 솔라즈議員은 金日成이 그들의 會談동안 세가지 立場을 開陳하였다는 報告書를 提出했다. 첫째로 北韓은 先行條件없이 韓國과 交易할 것에 同意했었다. 둘째로 北韓은 離散家族의 結合과 郵便物 交換의 先行條件으로서 韓國의 反共法의 廢止를 더이상 主張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金日成主席은 公式的인 外交關係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美國과 文化交流 및 其他 形態의 接触을 기꺼이 가질려고 하였다.[25] 그뒤에 아사이新聞의 記者들과의 會見에서 金日成은 앞쪽의 두 提議를 취소하였지만 美國과의 經濟的 및 文化的 交流

를 支持한다는 것을 認定하였다.

한편 뉴욕의 유엔本部에 속한 北韓의 官吏들은 여러 美國學者들과 學術団體가 交流計劃을 考慮할 것을 조용하게 鼓舞시켰었으며, 그러한 試驗的으로 推進되는 交流에 관한 어떤 規定이나 基準을 條件없이 받아들였다. 北韓의 代弁者들이 平壤의 主要한 讓步가 없는 한 公式關係가 먼 장래에서나 가능할 때에도 北韓의 代弁者들은 美國과의 非公式關係를 增進시키기를 여전히 徹底하게 고대했다는 조짐들이 강하였다.

따라서 北韓의 指導者들은 對日政策의 경우에서처럼 二重術策을 追求하고 있음이 把握될 것이다. 즉 北韓은 美國政府의 政策과 指導力을 소리높여서 攻擊함과 동시에 非公式的 性格의 文化的 및 經濟的 關係를 擴大하자는 간청을 倍加하고 있다. 北韓의 指導部는 만약 美國이 "두개의 韓國"政策을 採擇한다면 日本에 대해서처럼 다시 한번 그 政策을 容認하거나 혹은 歡迎하기조차 할 準備가 되어있다. 그 理由는 理解하기 어렵지 않다. 첫째 그러한 趨勢는 韓·美關係를 弱化시킬 것이며 적어도 平壤은 그렇게 믿는다(다른 한편으로 時間이 지남에 따라 美國人들이 北韓의 狀況에 대한 知識을 훨씬 增大시키는 외에 北韓의 知識人 等이 外部世界와의 接触을 增加하게 됨으로써 北韓의 發展에 심대한 影響을 끼칠 것이다.)

또한 그럴 資格이 있는 일부의 北韓 사람들은 美國 訪問客들에게 北韓이 日本 및 美國과의 接触이 擴大되기를 바라는 것은 部分

的으로는 북쪽으로부터의 圧力을 相殺시켜 주기를 바라는 希望때문이라고 말했다. 요컨대 만약 平壤이 자신과 相互交流하는 主要國들의 範圍를 擴大할 수 있다면 어떤 유일한 根源地로부터의 圧力을 減少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北韓의 重要한 딜렘마는 여전히 남아 있다. 非公式的인 바탕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美國 및 日本과의 接触이 發展되는 정도만큼 "두개 韓國" 方式은 促進되며 그러한 公式은 非共産強大國들과 마찬가지로 蘇聯과 中共에게도 어떤 主要 葛藤을 막기 위해 最終的으로 選擇하기에 充分한 變數로서의 魅力을 갖고 있다.

≪ 註 ≫

1) 1945年以後의 朝·蘇關係와 朝·中共關係에서의 初期의 問題들에 대한 說明에 대해서는 本 著者와 李庭植 共同研究인 Communism in Korea, Vol.Ⅰ을 參照.

2) 日本共産党에서의 韓國人의 役割과 日本共産主義의 朝鮮勞動党 및 北韓과의 關係에 대해서는 Rodger Swearingen과 Paul Langer의 Red Flag in Japan, Harved University Press, 1952와 Robert A.Scalapino의 The Japanese Communist Movement－1920～1966,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7 및 George M.Beckmann과 오쿠보 겐지의 The Japanese Communist Party－1922～1945,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9를 參照. 社會党의 紐帶에 대해서는 Allan B.Cole과 George O. Totten 및 Cecil H.Uyehara의 Socialist Parties in Postwar Japan, Yale University Press, 1966을 參照.

3) 朝總聯에 관한 記事에 대해서는 이창수의 "Chosoren: An Analysis of the Korean Communist Movement in Japan", Journal of Korean Affairs, Vol.Ⅲ, No.2, July 1973, pp.3～32를 參照.

4) 金日成의 1950年代에서의 日本에 대한 比較的 적은 言及에 대해서는 金日成의 選集인 For the Independent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 International Publishers, 1975를, 특히 그중에서도

"北朝鮮人民民主主義共和國의 創建 10周年記念式에서의 報告" (초록), 9月8日, 1958年, pp.49～56 및 "8.15解放 15周年記念式에서의 演說", 8月14日, 1960年, pp.57～71을 參照.

5) 박성춘의 "對日政策의 變化와 未來展望", 北韓, 1980年7月, pp.72～81 (pp.78～79)에서 引用.

6) Ibid., p.74.

7) 이 數値들은 日本의 對外貿易協會(JETRO)가 提供한 것임.

8) Ibid.

9) 이 會見에 대해서는 「아사이新聞」,東京, 9月25日, 1980年 p.3을 參照.

10) Foreign Broadcast Information Service (以下 FBIS), January 9, 1981, D 1에 실린 勞動新聞, "사악한 侵略計劃", 1月9日, 1981年을 參照.

11) Ibid.

12) FBIS, January 12, 1981, D 7～8에 실린 平壤新聞, Jan 11, 1981을 參照.

13) 박성춘, op.cit., p.79.

14) The Japan Times Weekly, 11月11日, 1975年參照.

15) 7.4共同聲明을 둘러싼 事件들에 관한 論議와 그 記錄의 意味에 대해서는 William J.Barnds의 The Two Koreas in East Asian Affairs, New York, University Press, 1976에 실린 論

文參照.

16) 美國의 政策을 酷評하는 代表的 記事에 대해서는 이종목의 "우리 人民의 祖國統一 主張을 위한 國際的 聯隊性의 強化", 「勤勞者」, No. 3, 1980年3月, pp. 60～64를 參照.

17) 자세한 것은 고병철의 "北韓, 1976年: 緊張狀態에 놓이다", Asian Survey, 1977年1月, pp.61～70(pp.61～63)을 參照.

18) 1976年3月29日에 日本의 週間誌 세까이(世界)의 編輯人 "야수에 뢰스께"가 面談하여 1976年7月號, pp.120～135에서 發表된 金日成과의 會見에서 引用한 고병철, op.cit., p.63參照.

19) 그 會見에 대해서는 고병철의 "1977年의 北韓: 再調整의 해" Asian Survey, 1978年1月, pp.36～44(p.40)參照.

20) 자세한 것은 Young C.Kim의 "北韓 1979年: 民族統一과 經濟發展", Asian Survey, 1980年1月, pp.53～62(pp.56～57) 參照.

21) FBIS, Dec.12, 1980, pp.D 2～4 CD 47에 실린 1980年12月11日에 平壤에서 開催된 祖國統一民主戰線 中央委員會의 發表參照.

22) FBIS, Dec.12, 1980, D 1에 실린 平壤 KCNA, Dec 12를 參照.

23) FBIS, October 31, 1980, D 7～8(D 8)에 실린 吳極烈의 1980年10月12日의 朝鮮勞動党 第6次2期會議에서의 演說 參照.

24) 그 간단한 言及에 대해서는 勞動新聞 1980年7月16日字의 p.4, 1980年7月19日字의 p.1 및 1980年7月20日字의 p.4를 參照.

25) 자세한 것은 Young C.Kim의 "1980年의 北韓 : 태양이 다시 떠오르다", Asian Survey, 1981年1月 參照.

第3部：「北朝鮮의 政変」－金正日이 副主席에 就任하지 못한 意味－

佐　藤　勝　已
(朝鮮研究所　幹事)

번역：金　昌　柱
(국토통일원 상임연구위원)

머 릿 말

今年(1982年)4月5日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7期 第1次 會議가 開催되었다. 北韓의 最高人民會議가 이곳 日本에서 이렇게 關心을 일으킨 것은 지금까지 그 例가 없었던 일이다. 사람들의 關心의 焦點은 말할것도 없이, 金日成의 子息인 金正日이가 副主席에 就任해서 名實共히 後繼者가 되느냐 아니냐에 있었다. 萬若 그것이 實現되면 社會主義國家에서는 史上最初로 있는 것으로 「實子를 後繼者로 하는 社會主義란 무엇인가」라는 論議를 일으킬 말하자면 國際的인 事件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豫想을 뒤엎고 金正日이 副主席에 就任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金正日의 序列이 떨어지는 것을 비롯하여 적어도 4月1日부터 中旬까지 政治的 異變이 계속 發生하였다.

本稿는 그 意味를 찾아낼 目的으로 쓴 것이나 本稿를 끝낸 그날(4月22日)「統一日報」는 4月9日에 死亡한 朝鮮勞動党中央委員會 政治局委員 崔賢이 「2月과 3月 2回에 걸쳐, 現在의 北韓의 支配體制를 날카롭게 批判하고, 그것의 早速한 是正을 要求하는 建議書簡을 提出하였으며 그것이 4月初의 北韓政權을 흔들은 一連의 움직이는 起爆剤가 되었지만, 金日成·金正日 父子 및 世襲體制推進分子들의 反發을 사서 謀殺된 것이 아닌가」하여 크게 傳해졌다. 事實與否를 判斷할 材料는 없지만, 眞實이 무엇인

가는 멀지않는 將來에 判明될 것이다. 어쨋든 지금의 北韓의 政治經濟狀況은 무엇이 일어나도 이상한 것이 아닌 異常狀態에 있다.

日本人의 北韓에 관한 關心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過言은 아니다. 筆者는 애써 韓國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關心을 갖기를 願하고 있다. 北韓의 政治經濟를 不問에 붙히고 韓國의 「民主化」나 統一을 論議하는 것처럼 「넌센스」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北韓을 理解하려는 努力의 하나로 本稿를 썼다. 以下부터 一問一答의 形式으로 問題를 풀어가고자 한다.

六次黨大會에 있어서 金正日의 臺頭

4月5日에 開催된 北韓 最高人民會議에서 金正日이 副主席에 就任할 것으로 日本의 「매스콤」을 비롯하여 本誌 編輯部도 豫測하였다. 그런데, 그것은 實現되지 않았으며 上部層의 人事異動도 전혀 없었다. 豫測은 틀렸다는 것인가? 보기좋게 豫測이 빗나간 것이었으나, 그러나 金正日이 副主席에 就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그 나름대로의 根據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周知하는 바와같이 金正日은 金日成의 實子이다. 金正日이 勞動党에 있어서의 職責에 관해서 말하면 1980年 10月의 第6次大會 前에는 党中央委員會 候補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6次大會에서 一躍 中央委員 145名中 第4位로 登場했다. 또한 政治局員中 第

4位이고 同時에 政治局 常務委員 5人(金日成·金 一·吳振宇·金正日·李鍾玉)中 第4位이다.

秘書局은 10名으로 構成되고 있는데 金日成秘書를 除外한 秘書의 最上에 位置하고 있다. 더우기 19名의 軍事委員中 第3位에 「랭크」되고 있다.[1] 말하자면, 中央委員, 政治局委員, 秘書局員, 軍事委員과 같은 党中央委員會中에서도 가장 重要한 모든 地位를 가지고 있는 것은 金日成, 金正日 두 사람뿐이다.[2]

前党大會에서 中央委員會候補에 不過하던 者가 一躍 그와같은 「포스트」에 就任한다는 것은 一般的으로 어느 社會主義國家에서도 없었으며 "朝鮮勞動党"에 있어서도 처음있는 일이다. 이것으로 金正日은 党內에서 實質的인 第2人者로서 結局은 權力의 繼承者로 보여졌던 것이다.

權力者의 意圖를 感知할 수 있는 候補者名簿

金正日이 副主席에 就任할 것이라고 생각한 根據는, 勞動党 第六次大會에서 事實上 第2人者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最高人民會議에서도 副主席에 就任하여 國家의 職責에 있어서도 第2人者가 되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인가?

크게 말하면 그러한 것이였지만 나름대로의 具體的인 根據가 있었다. 金正日은 從來 日本의 國會에 該當하는 最高人民會議의 代

議員(國會議員)은 아니였다. 이번 最高人民會議(第7期)의 選擧는 지난 2月28日 實施하였다. 北韓의 選擧는 615個 選擧區에 1名씩의 候補者를 내세워서 그 候補者를 信任하는가 아닌가의 投票를 實施하고 있다. 金正日은 第501號 松林選擧區에서 立候補하여 信任된 代議員이 되었다.

이 過程에서 注目할 것은 投票 8日前 2月20日字 勞動新聞에 發表된 615名의 全候補者 名簿이었다. 金日成을 特別히 取扱하여 新聞一面의 約 半을 割愛하여 公示하고 있는 것은 차치하고 나머지 614名의 候補者에서 序列에 따라 43名을 名簿의 冒頭에 빼내어 실고 各各 党의 職責名을 붙혀 그 以外의 候補者의 倍의 크기의 活字를 使用하고 있다. 더우기 그 중에서도 上位의 金一·康良煜·金正日·吳振宇·李鍾玉 등 5名은 党職責以外에도 國家의 職位도 함께 發表되었다. (金正日은 國家의 職位가 없으므로 党의 職責 두가지가 記載되고 있음) 또한 이 5人中에서 세번째의 金正日에 대하여 쓰여진 活字만은 다른 4名의 것보다 倍의 크기로 되어있고 姓名部分은 더 큰 活字로 되어 있었다.

같은 最高人民會議의 代議員候補이면서 候補者名簿에 表記할 때는 活字의 크기가 큰 活字를 包含하여 5種類가 使用되어지고 있다. 더욱 表記方法도 姓名만인 것, 직함이 하나인 것, 둘인 것, 別格인 것(金日成)등 4種類가 있다. 다음은 序列2位인 金一에 대한 칭호는 「朝鮮勞動党中央委員會 政治局常務委員會 委員이고, 副主席

인 金一同志」라고 되어 있고, 3位인 康良煜의 그것은 「朝鮮社會民主党 中央委員會 委員長인 康良煜 副主席」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같은 副主席인 朴成哲은 代議員 候補者中 일곱번째이며 칭호도 「朝鮮勞動党 中央委員會 政治局委員인 朴成哲 同志」로 되어 있고, 副主席의 칭호가 붙어 있지 않다. 政党의 選擧는 아랑곳없이 最高人民會議의 候補者 名簿에 세사람이 있는 國家副主席中에서 朴成哲 한사람만이 칭호가 붙어 있지 않았다. 더우기 일곱번째로 發表된다면 누구든지 "왜"라는 疑問을 가질 것이다.

그런데 前回의 第6期 最高人民會議 代議員選擧(1977年11月11日投票)의 候補者 名簿의 發表方法을 보면 金日成과 「朝總聯」所屬의 候補者名만을 發表하고 있으며, 다른 候補는 大部分 發表하지 않았다. 또한 이전의 第五期最高人民會議 代議員候補者 名簿(1972年12月4日字 勞動新聞發表)는 金日成 한사람을 例外로 하고, 다른 모든 候補者는 같은 活字의 크기로 모두 칭호없이 姓名만을 第1選擧區에서 541選擧區까지 番號順序로 平等하게 公示하였다.

金日成만을 무슨 理由로 特別히 取扱하는 것인가라는 問題는 依然히 남는 것이나, 그 以外는 어떤 角度에서 檢討하더라도 第3期 最高人民會議 代議員 名簿의 公示方法이 正常이며 옳다고 생각한다. 이번과 같이 현저히 公平을 缺한 非民主的인 發表方法으로 달라진 것은 特定權力者의 恣意가 作用한 것을 假定하지 않으면 理解할

수가 없다.

그것은 特히 2月20日의 名簿發表 時點에서 北韓의 國民은 朴成哲이 國家副主席에서 없어졌다고 생각한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代議員候補者 名簿가 勞動新聞에 發表된 後 2月21日發의 朝鮮中央通信에서는 「偉大한 指導者 金日成主席의 特使인 朴成哲副主席이 「모잠비크」를 訪問하기 위하여 20日 空路 平壤을 出發하였다.」[3] 라고 朴에 副主席 칭호를 붙여서 報道하고 있는 것을 보면 2月19日 時點에서 朴이 副主席이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朴成哲에 대한 勞動新聞의 取扱方法이 意圖的(勞動新聞의 主筆陣이 獨自의 判斷으로 이러한 重大한 일을 할 리가 없다. 누군가의 指示를 받았을 것이다)인 것을 感知할 수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에 比하여 前述한 바와같이 金正日은 무엇이든지 特別 取扱되고 있다. 以上으로서 副主席에는 朴成哲과 金正日이 交替되는 것이 아닌가고 생각하였다해도 그만큼 不自然스러운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序列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序列이란 무엇이며 또한 누가 決定하는 것인가.

序列이란 社會主義國家에서 훌륭함의 順位를 表現한다기보다 權力의

크기의 順位를 나타내는 象徵이라고 하는 것이 正確한 것이다.

代議員候補者 名簿의 第1號選擧區에서 615號選擧區까지 序列에 따라 決定된 것인지 아닌지는 判斷할 수 없지만 候補者 名簿의 冒頭에 큰 活字로 나타나고 있는 金日成主席以下43名(康良煜 除外)은 權力의 크기의 順位로 發表되고 있다. 왜냐하면 康良煜 1名을 除外하고는 다른 모든 候補者는 勞動党의 党員으로서 党內序列과 符合되기 때문이다.

다음에 序列은 누가 決定하는가?라는 問題인데 筆者는 그 以前부터 序列 特히 党內의 序列을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基準으로 決定하는가 關心을 가지고 機會있을 때마다 여러사람에게 물어왔지만 本稿를 쓰고 있는 現在까지도 明確한 解答을 얻지 못하고 있다. 推測할 수 있는 것은 最高人民會議代議員名簿의 順位는 同會議中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 書記長 林春秋)가 決定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것은 形式이고 事實은 勞動党中央委員會秘書局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最近에 와서는 "朝鮮勞動党"의 境遇 從來는 金日成 總秘書 한사람이 決定하였는데 요즈음은 金正日을 비롯하여 秘書局에서 決定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하여 준 사람이 있었다.

金正日은 金日成 總秘書를 除外한 秘書의 最上에 位置하는 사람이다. 萬若 秘書局에서 党內의 序列을 決定하는 것이 事實이라고 하면 後述과 같이 金正日의 序列은 4月5日의 最高人民會議의 時

點에서 하나 내려갔으나 4月14日의 党中央委員會와 最高人民會議의 合同會議에서는 다시 하나 올라갔다. 金正日을 包含한 秘書局의 秘書9名이 論議하여 이와같이 金正日의 序列을 올렸다 내렸다 한다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인가. 지금 조금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氣分이다.

序例이 올라간 金正日

金正日의 序列이 내렸다 올랐다고 하였는데 과연 六次党大會以後 金正日의 序列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는가?

序列을 追跡해보면 다음과 같다. 六次党大會 當時의 當內序列은 金日成, 金一, 吳振宇, 金正日, 李鍾玉(以上 政治局 常務委員), 朴成哲, 崔賢, 林春秋, 徐哲, 吳白龍, 金仲麟, 金永南, 全文燮, 金渙, 延亨默, 吳克列, 桂應泰, 姜成山, 白鶴林(以上 政治局 委員), 許錟, 尹基福, 崔光, 趙世雄, 崔載羽, 孔鎭泰, 鄭準基, 金鐵萬, 鄭敬姬, 崔英林, 徐允錫, 李根模, 玄武光, 金江煥, 李善實(以上 政治局 委員候補)…로 繼續되지만[4] 요컨데 金正日의 序列은 4位였다.

變化의 第一은 1981年5月29日 故沈昌完(党中央委委員·社會安全部政治局長)의 弔問時에 弔問者의 「톱」에 金正日의 姓名이 추켜지고(金日成, 金一兩者는 弔問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에 吳振宇(政治局常務委員·人民武力部長), 金永南(政治局員·秘書) 順으로

發表되었다.[5] 여기에서 金正日과 吳振宇의 序列이 交替된 것이 判明되었다. 以後, 今年 3月1日의 最高人民會議 代議員의 當選發表(3月2日字 勞動新聞揭載)時點까지 金正日과 吳振宇의 順位는 交替된 채로였다.

다음으로 注目할 點은 報道에서 보는 限 1980年10月의 第六次 党大會以後 今年 4月5日의 最高人民會議 第7期 第一次會議까지 18個月間 金一과 金正日이 나란히 同一行事에 나타나지 않았었다는 事實이다.

例컨데, 昨年 9月9日의 北韓創建 33週年 祝賀宴에서 金一이 出席하고 있는데 政治局 常務委員으로는 金正日의 이름만이 보이지 않는다.[6] 아마 缺席한 것일 것이다. 따라서 이때 發表된 序列은 金日成, 金一, 吳振宇… 으로 되어 있다.

또한 昨年 12月31日밤 「平壤市 學生少年의 봄맞이모임」이 平壤體育館에서 開催되어 金日成, 金一을 비롯하여 党과 政府의 幹部가 出席하였다. 그러나 金正日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7] 다음날인 1982年1月1日의 「朝鮮人民軍 協奏団 藝術人」들의 「新年慶祝公演」에 金一은 出席하였는데 金日成과 金正日 兩者의 姓名은 없었다.[8] 더우기 今年 3月12日에 死亡한 全昌哲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事務長에 대한 13日의 弔問에는 金日成外에 「朝鮮勞動党中央委員會政治局委員과 候補委員, 朝鮮勞動党中央委員會秘書, 政務院副總理」들이 訪問했었다고 전하였다.[9] 다음날 14日의 葬儀

의 參加者는 「金一, 朴成哲, 林春秋, 徐哲, 金永南… 」등으로 報道되었다.[10]

이 報道에서 注目되는 것은 弔問時의 報道에서 金日成을 除外한, 다른 사람의 이름은 省略하고 党의 職責만을 記載한 반면 다음날의 葬儀에서는 人名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 報道의 差異는 單純히 偶然에 불과한 것인가, 그런대로의 意味가 있는 것인가는 후에 檢討해 보고 싶은 생각이다. 그것은 도대체 勞動新聞등의 報道만을 보면 金正日의 序列은 例컨데 昨年 10月24日 平壤에서 開催한 社勞青 第7次大會 慶祝 青年學生의 夜會出席者의 序列은 金日成, 金正日, 吳振宇, 李鍾玉… 과 같이 2位이다.[11] 또 金日成, 金一이 參加하지 않고 開催한 境遇에는 金正日, 吳振宇로서 序列은 「톱」이다. 결코 3位로 報道된 일이 없다.

黨內序列의 不滿

金正日이 金 一과 同一行事에 出席하지 않는다는 것을 물론 偶然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6次党大會直後인 1980年10月14日에 행해진 다음 세가지 行事에 대한 報道內容을 살펴보자. 이날 (가)平壤市에서 平壤市 青年學生의 "마스게임"이 행해졌다. (나)金日成에 받치는 北韓人民의 忠誠의 便紙贈呈式이 있었다. (다)또 金日成總秘書主催의 慶祝宴이 있었다. 金

日成은 이 세行事에 全部 出席하고 있다. (가)(나)의 出席者名은 金日成에 이어 「金一, 吳振宇, 李鍾玉, 朴成哲… 」으로 發表되고 있다. (다)의 出席者는 「党中央委員會 政治局 常務委員, 政治局員, 秘書」의 식으로 党幹部의 姓名을 올려서 報道하지는 않았다.[12]

그런데 (다)의 行事에 金正日이 參加하고 있는 것을 當時 日本社會党의 副委員長이었던 阿具根氏가 確認하고 있다. 그러나 阿具根氏는 같은 會場에 金一이 있었느냐 아니냐는 言及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가령 金一이 同席하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吳振宇가 있어도 金正日의 序列은 3位가 된다. (다)의 行事에 參加한 党幹部의 姓名을 表示하면 金正日의 序列은 3位나 4位에 나올 뿐이다. 그것을 막기 위하여 党의 職責만으로 人名을 올리는 것을 피한 것이 아닌가하고 推測된다.

왜냐하면 第6次党大會以後 昨年의 5月末까지 約 7個月間 吳振宇와 序列이 交替되어 發表될때까지 金正日의 이름은 公式報道에 전혀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 以後 前述한 바와 같이 金一과 같이 同一行事에 參加하는 것을 볼 수 없고, 金正日의 이름이 行事나 「實務指導」등에서 나올 때에는 序列2位나「톱」에 나오게 되었다. 3月에 故全昌哲을 弔問하였을 때의 報道에서 金日成以外의 人名은 올리지 아니하고 党의 職責만이 전하여지고 있다는 것은 前述하였지만 이때는 金一과 金正日이 同席하고 있는 것으로 推定할 수 있다.

以上의 經過에서 볼때 金一과 金正日과의 同席이 없었다는 것은 도저히 偶然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金正日이나 그 周邊이나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雙方이라고 생각된다) 第六次党大會에서 金正日이가 4位라고 하는 序列에 不滿을 품고 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報道하지 않도록 意圖的으로 움직여온 누군가의 党幹部, 그것도 약간 高位의 幹部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틀림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시말하면 周邊에서 무어라 말해도 本人이 그와같은 「工作」을 拒否한다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역시 무엇보다도 本人이 序列에 不滿하였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金正日派」는 存在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金正日派」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여도 좋은가? 金正日은 金日成의 「現地指導」와 비슷한 「實務指導」를 하고 있다. 먼저 그 「實務指導」를 누가 同行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자.

(1) 昨年 5月 18～22日 妙香山地區 視察

同行者는 吳振宇 政治局 常務委員(人民武力部長), 金仲麟 政治局員, 許錟 政治局員候補(報道는 6月4日)

(2) 同8月7日 平壤巧芸劇場의 新作公演 觀覽

같은 吳振宇 政治局 常務委員, 延亨默 政治局員, 李昌善 中央委

委員（文化芸術部長）

(3) 同8月16日 氷上館（아이스 스케이트場）과 千石食堂 建設의 實務指導.

같은 延亨默 政治局員, 李鎭洙 中央委員（社會安全部長）

(4) 同8月25日 非同盟食糧農業 增産會議 會議場 視察.

같은 金仲麟·延亨默 政治局員, 許錟 副總理兼 外交部長

(5) 同9月18日 人民大學習堂 建設의 實務指導.

같은 吳振宇·李鍾玉 政治局 常務委員, 金永南 政治局員, 許錟·徐允錫 政治局候補委員

(6) 同9月28日 李季白 總聯副議長과의 會見

같은 吳振宇 政治局 常務委員, 金仲麟·延亨默 政治局員, 許錟 政治局候補委員

(7) 同12月21日 牡丹峯競技場 改造擴張工事等 實務指導

같은 吳振宇 政治局 常務委員, 金仲麟·延亨默 政治局員, 許錟 同候補委員

(8) 1982年2月16日 牡丹峯競技場의 實務指導

같은 吳振宇, 金仲麟, 金永南, 延亨默, 許錟, 徐允錫 [13]

以上을 綜合하면 金正日의 實務指導등에 同行하고 있는 党幹部는 吳振宇 6回, 金仲麟 5回, 延亨默 6回, 許錟 6回로서 이 4名의 特定幹部에 集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우기 「그룹」의 「이데오로기스트」로서 林春秋 政治局委員이 있다. 다른 幹部와

달라서 이들은 언제나 行動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金正日派」로서 보아지지 않을 것도 없다. 그리고 金正日을 後繼者로 育成하기 위하여 計劃이 作成되어 있고 이들이 그 擔當者라는 생각도 可能한 것이다. 왜냐하면 吳振宇는 人民武力部長이고 許錟은 外交部長이다. 党과 行政은 서로 뜻이 맞는 사람들이 公務를 위하여 바쁘게 돌아가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따라서 自己의 일이외에 많은 時間을 割愛할 餘裕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들이 특히 計劃擔當者로서, 金正日을 隨行하는 것도 公務의 一環으로 하는 것이라면 理解되는 것도 可能하다. 또 金正日이 第2의 實力者라 하더라도 自己의 氣分에 맞는 幹部만을 언제나 끌어들여서 實務指導등을 한다고 하면 公然한 徒党活動이라고 할 수 있다. 現在 그 어느 것으로 斷定할 수 있는 資料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금 당장 그 樣相을 알아낼 必要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餘裕를 表示하는 金正日

最近 4月2日字 勞動新聞에 揭載된 10枚의 寫眞이 關係者들 간에 話題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들었는데… ? 4月2日字 勞動新聞은 2～4페이지의 殆半을 割愛하여 칼라寫眞 10枚를 揭載하였다. 그 中心은 4月1日에 金日成, 金正日을 비롯한 党幹部 多數가 凱旋門, 人民大學習堂, 主體思想塔, 牡丹峯競技場등을 視察하고

있는 것이다.

이 10枚의 寫眞中에 金日成, 金正日 兩者가 같이 찍은 것이 7枚이다. 이 7枚中 6枚는 金日成 옆에서 金正日이 「포켓」에 손을 넣고 있는 寫眞이다. 다른 老幹部들이 手帖과 鉛筆을 가지고 緊張된 얼굴로 寫眞을 찍고 있는데 金正日 혼자만이 「포켓」에 손을 집어넣고 있는 餘裕있는 態度를 볼 수 있다.

이 4大建築物은 金正日이 直接指導하여 만든 것으로 되어 있다. 그 建築物을 背景으로 勞動新聞이 前述한 바와 같은 寫眞을 크게 揭載한 것은 3日後에 열리는 最高人民會議 第7期 第1次會議를 두고 金正日이 副主席에 就任할 事前 示威運動이라고 많은 사람이 받아 들인 것은 오히려 自然스러운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한다.

副主席 就任의 條件

序列등의 側面에서의 說明은 어느 程度 理解되었지만 그 以外의 움직임은 없었는가?

第6次 党大會 直後부터 말하여지고 있는 것이지만, 從來 金日成이 해오던 党務등이 金正日에게 맡겨진 것처럼 보여진다고 말한다. 金日成에게는 「現地指導」, 金正日에게는 「實務指導」라고 하는 말이 使用되어 왔다. 即 實務를 全面的으로 맡고 있다는 側面에서 이같은 말을 使用하고 있다고 說明하고 있다.

더우기 그가 實務를 掌握하고부터 機關「멤버」나 機關誌등의 幹部를 비롯하여 多方面에 걸쳐 大幅的인 人事異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前述과 같은 勞動新聞의 一班의 움직임은 그것을 立證하는 좋은 例로 보여지고 있다.

더우기 이번에 當選한 代議員의 3分의 2는 北韓에서 거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새로운 사람들은 三大革命小組를 背景으로 한 金正日의 熱烈한 支持者라고 한다. 이러한 面에서 그는 副主席에 就任할 條件은 充分히 갖추고 있다고 보여진다.

主席과 同格으로 取扱

朝總聯의 움직임은 어떠하였는가?

朝總聯의 機關紙 「朝鮮新報」(朝鮮語)는 昨年 4月頃부터 金正日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캠페인을 繼續하여 왔다. 그때부터 總聯內의 學習의 殆半이 金正日에 대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昨年 12月7日字 「朝鮮新報」는 金日成의 銅像앞에 金正日이 서있는 큰 寫眞을 揭載해서 話題를 일으켰다. 더욱 「主體時代를 비치는 偉大한 태양」이라고 하는 記事가운데 「人類가 낳은 偉大한 首領 두분을 다같이 받들어… 」라고 하여 金正日을 金日成과 同格의 「首領」이라는 말로 表現하고 있다. 이러한 캠페인

은 總聯獨自의 判斷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勞動党 中央의 指示가 없는 境遇에는 은밀한 指導에 의하여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關係者가 周知하는 바와같이 日本人으로 構成된 「金日成著作研究會」라고 하는 組織이 있다. 이 研究會는 機會있을 때마다 金日成에게 便紙를 보내고 있는 組織이었는데 昨年 4月부터 總聯의 金正日을 稱讚하는 運動과 歩調를 같이하여 同研究會는 金正日에게도 便紙를 보냈다. 注目을 끄는 것은 그 便紙의 內容보다도 機關誌등에서 그 便紙의 取扱方法이 金日成 앞으로 보낸 便紙와 거의 同格으로 되어있다. [14]

金正日의 生日(2月16日)祝賀行事의 規模를 둘러싼 北韓에서의 指示가 一貫性을 缺하고 있다는 不協和音은 있었지만 從來의 經過에서 볼때 金正日이 副主席에 就任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사람은 總聯의 活動家중에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일로 크게 놀란 것은 日本에 있어서는 總聯의 사람들이 아니었겠는가

異變의 連發

그러면 金正日은 왜 副主席에 就任하지 않았는가?

異變을 列擧하면 전에 말한 것처럼 北韓은 總聯에 대하여 金正日의 生日祝賀行事의 規模를 둘러싼 指示를 두번 세번 바꾸기도 하였다. 그것은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대단한 事件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가령 金日成의 後繼者의 生日祝賀行事의 規模가 몇번이나 變更된다고 하는 것은 어쩔수 없었던 일일 것이다. 그것이 現實的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金正日의 後繼者로서의 位置가 생각하여 온만큼 安定되지 않았다는 것이 具體的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即 첫段階부터 金正日의 處遇를 둘러싸고 勞動党上層部內에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일에 아무도 注意하지 않았다.놓았다.

다음에는 豫告없이 突然히 4月3日 勞動党中央委員會 第6期 第5次總會가 開催되었다. 그 總會에서 「最高人民會議 第7期 第1次會議에 提出할 議題를 討議하였다.」[15] 고 한 일이다. 勞動党은 中央委員會를 열어도 發表하지 않는 일이 많으므로 突然 開催한 것 自體는 同党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問題될 것은 없다. 그러나 前後의 關係에서 볼때 무언가 異常한 事態였다고 推測될 수 밖에 없다.

4月5日의 最高人民會議(第7期 第1次)의 寫眞이 4月6日字 勞動新聞에 揭載되었다. 金日成이 中央에 位置하고 있으며 그 左側에 金一, 右側에 吳振宇가 있다. 吳振宇의 오른쪽 옆에 金正日이 앉아 있다. 即 金正日과 吳振宇의 序列이 交替되어 있는 것이다. 金日成의 後繼者인 金正日의 序列이 하나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北韓에 있어서는 참으로 큰 事件으로 큰 「뉴스」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豫告없이 開催된 4月3日의 勞動党 中央委員會 總會는 역시 異常하게 일어난 것의 하나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金正日이 序列이 떨어진 것이 正式으로 確定된 것은 이 中央委員會이었다고 推定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中央委員會 總會에서 무엇이 論議되었는가는 特別히 注目할 價値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從來 最高人民會議 選擧後의 第一次會議는 大體로 3日間이었다. 그런데 이번은 會期1日로서 특히 國家主席의 施政方針 演說도 없이, 人事面에서는 많은 豫想을 뒤엎고 金正日이 副主席에 就任하지 않았다. 또한 人民武力部長, 社會安全部長과 國防委員會의 人事가 發表되지 않은채 남고, 그외의 「포스트」는 大部分 留任이라고 하는 人事問題에 있어서 異常한 事態가 일어났다.

더우기 最高人民會議의 다음날 6日 金日成은 平壤百貨店등을 視察하였는데 同行者의 名簿가운데 吳振宇, 金正日 兩者의 이름이 보이지 않았다.[16] 두 사람은 同行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4月14日에는 더욱 例가없는 勞動党 中央委員會와 最高人民會議의 合同會議가 열리고, 거기에서 金日成의 施政方針 演說이 있었다.

그러나 討論은 一體없이, 더욱 반나절에 그 會議가 끝났다. 여기에서 특히 注目되는 것은 이 合同會議에서 金正日의 序列이 다시 吳振宇의 위에 올라가고, 吳振宇도 人民武力部長으로 發表되어[17] 원래대로 돌아간 것이다.

以上과 같이 4月3日부터의 北韓에서는 異常事態가 連續해서 發生하였다.

金 日 成 의 判 斷

그 原因은 무엇인가?

여러가지가 推測될 수 있지만 現在 많은 臆測이 있다. 그러나 筆者를 包含하여 아무도 그 眞相을 잡을 수 없는 것이 現狀이다. 北韓이라고 하는 나라는 「알 수 없는 나라다」라고 하는 感情을 갖게 한다.

그러나, 다만 한가지 筆者가 確信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現在의 北韓에 있어서 金正日을 밀 수 있는 사람은 金日成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미 보아온 바와같이 모든 面에서 金正日이 副主席(吳振宇도 副主席에 豫定되어 있다고 보는 측도 있다.)에 就任할 수 있는 環境을 만드는 것은 적어도 表面的으로는 完了되어 있다. 中共에 있어서는 毛澤東의 後繼者로 指名되었던 林彪는 짧은 期間에 그와같은 末路를 당했다. 權力移行의 問題는 中共이나 北韓과 같은 社會에 있어서는 그처럼 深刻한 問題인 것이다. 金正日을 自己의 後繼者로 決定한 것은 金日成이다. 그 金日成은 金正日이 明白히 바라고 있는 副主席就任을 現時點에서 왜 承認하지 않았는가라는 問題에 부딪힌다.

農業이 最重點政策으로

왜 容認하지 안했는가?

그 理由는 北韓에서도 아주 적은 一部의 幹部만이 모르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現時點에서 發表된 公式文獻에서 그 背景이 되는 點을 알아 볼 수 밖에 없다.

4月14日의 金日成의 「全社會를 점차 思想化하기 위한 人民政權의 課題」[18]라는 演說은 (以下 4月14演說이라 함) (1) 人民政權의 存在方法 (2) 經濟建設 (3) 自主性의 問題(統一問題와 非同盟運動의 方法을 言及)의 셋으로 되어 있다. 演說基調는 1980年 10月의 第6次党大會와 같은 것이였다. 다만 한가지 注目할 점은 經濟建設가운데서 農業의 位置가 달라져서 最重要視된 것이다.

第6次党大會에서 「社會主義 經濟建設 10大展望目標」(80年代末까지의 各産業分野의 增産目標를 明示하고 그것이 達成되며는 「世界先進國의 隊列에 당당히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19]라고 하는)가 發表되었지만 이 目標를 成功裡에 達成하기 위하여는 採掘工業을 「確固히 先行시키는 것이 經濟建設의 根本原則이라는 位置를 정하고 다음에 電力, 加工工業, 農業, 交通運輸, 貿易… 의 順序로 되어있다. 1981年1月1日의 金日成의 新年辭도 第6次大會 그것과 大體로 같았었다.

그런데, 昨年 10月4日~6日의 党中央委總會에서 「全党, 全國, 全

人民이 나란히 海面干拓과 새로운 土地開墾을 위한 大自然 改造事業에 總力을 傾注하는데 대하여」를 決定하였다.[21] 이어 82年 1月1日의 新年辭에서[22] 「今年 社會主義 經濟建設에… 가장 重要한 課題는 大自然 改造事業에 總力을 傾注하여 擴大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即 耕地를 擴大하여 穀物의 增産을 圖謀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번 4月14日演說에서는 農業 특히 食糧問題와 經濟建設을 冒頭에서 言及하였다. 多少 길어지지만 重要하다고 생각되어 引用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人民의 食生活問題를 圓滑히 解決하기 위하여 穀物生産目標와 水産物生産目標 達成에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社會의 物質生活分野에서 緊要한 것은 食生活問題입니다. 이 問題解決의 基本은 穀物을 大量生産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党과 共和國政府는 지금까지 農業第一主義 方針을 貫徹하여 穀物生産을 劃期的으로 增大하여 食糧問題를 훌륭히 解決하였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穀物을 增産하여 人民의 食生活問題를 完全히 解決할 榮譽있는 課題가 提起되고 있읍니다.

쌀은 即 共産主義입니다. 쌀에서·人情이 나온다고 하는 俗談도 있으나 食糧이 豐富하면 人民의 意識狀態도 좋아져서 모든 것이 順調롭게 됩니다. 쌀을 大量으로 生産해서 人民이 滿足할 수 있는 食生活을 시킴으로써 社會主義·共産主義建設을 成功裡에 밀고 나아갈 수 있으며 必要에 따라 穀物의 供給을 할 수 있게 되므

로서 共産主義 社會를 實現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은 社會主義·經濟建設의 10大展望目標 達成에 있어서 穀物生産目標를 于先達成하고 人民에 대한 穀物供給에서 먼저 共産主義的 分配를 實施하지 않으면 아니됩니다. 第6次党大會가 明示한 1,500萬톤의 穀物生産目標를 達成하기 위하여는 4大自然改造課題를 完遂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라고 한 것이다.

이와같이 食生活 특히 쌀의 大量生産이 經濟建設의 最重點政策으로 바뀐 것이다.

第6次黨大會 報告와 4.14演說의 相違

經濟建設의 優先順位의 變化는 알았지만 쌀이 絶對라는 말은 北韓에서 지금까지 말하여 오던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러한 文脈으로 쌀의 重要性을 呼訴한 것은 이번이 最初이다. 直接 쌀을 言及한 것은 아니지만 1980年 10月의 第6次党大會에 있어서 經濟總括部分에서 金日成은 「우리나라 社會主義 經濟의 威力은 比較할 것도없이 強化되었읍니다. 오늘날 世界의 많은 나라에서는 原料難, 燃料難에 의하여 生産이 減退하고, 物價가 高騰하고, 失業者가 增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現象은 전혀 없읍니다. 世界的인 經濟波動이 아무리 심해도 우리나라의 經濟는 계속해서 높은 速度로 發展하고 있으며, 人民生活은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읍니

다」라고 말하고 있다.[23]

또 社會制度의 總括部分에서 「우리나라에서는 國家가 責任을 지고 全人民에 衣食住에 必要한 모든 物質的 條件을 保障하고 있읍니다. 勤勞者는 모두 能力에 맞게 職場을 가지고 있고,國家로부터 安全한 勞動條件과 充分한 休息條件을 保障받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歷史的으로 받아오던 租稅制度가 完全히 廢止됨에 따라 人民이 稅負擔에서 永遠히 解放되고, 社會의 富가 增加함에 따라 人民의 物質, 文化生活은 점차 높아지고 있읍니다.

또한 無償治療制와 無料敎育制의 惠擇에 따라 누구나 한푼의 돈도 쓰지 않고 治療를 받고 있으며 마음 먹는 대로 배울 수 있읍니다. 실로 오늘의 北韓人民은 國家와 社會의 主人으로서 自由와 權利를 마음대로 行使하고 있으며 아무 근심도 없이 모두 한결같이 裕福한 生活을 하고 있읍니다」라고 하고 있다.[24]

이번 4.14演說에 나타난 「쌀에서 人情이 낳는다」라던가 「食糧이 豐富하면 人民의 意識狀態도 좋아져서 모든 것이 順調롭게 된다」라고 하는 發言과 比較할 때 그 差異는 여러 말이 必要하지 않을 것이다.

食糧事情의 惡化를 認定한 4.14演說

이렇게 말하면 確實히 큰 差異를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4.14演說은 어떻게 理解하면 좋은가?

전번 第6次党大會의 引用文의 內容도 現實과는 顯著히 괴리된 것이지만 이번에는 그 表現을 維持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욱 4.14 演說은 核心以前의 것으로 經濟建設의 冒頭에 農業問題 특히 쌀의 增産을 쳐들고 있는 것은 食糧問題가 現在의 北韓에서는 얼마나 緊要한 問題가 되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에 4.14 演說의 引用文의 核心을 檢討한다.

(1) 食生活問題를 圓滿히 解決하기 위하여 目標를 達成하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말할것도 없이 食生活問題가 解決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別途의 表現이다.

(2) 物質生活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食生活이며, 이것의 解決은 穀物을 大量으로 生産하는 것이다라는 것인데, 이와같이 至極히 當然한 것을 높이 強調한다는 것은 過去에는 例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現實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勞動党과 政府는 穀物을 「劃期的으로 增大하여 食糧問題를 훌륭히 解決하고 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穀物을 增産해서 人民의 食生活問題를 完全히 解決하는 榮譽로운 課題가 提起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훌륭히 解決하였다」와 「完全히 解決하는」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훌륭히」와 「完全히」의 2個의 修飾語를 빼내면 「解決하였다」에도 不拘하고 「解決할 課題가 提起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部

分은 修飾語로 食糧事情을 말하는 것인지 政策의 過誤를 糊塗하려는 것은 아닌가.

(4) 「쌀 即 共産主義」인지 어떤지는 別途로 하고 쌀이 없으면 人情이 없어지고, 食糧이 缺乏하면 人民의 意識狀態도 나빠지며 모든 것이 잘 되지 않는다. 쌀을 많이 만들어서 食生活을 安定시키지 못하면 社會主義, 共産主義의 實現은 어렵게 된다. 따라서 當面 10大展望目標中에 穀物의 生産目標를 最優先으로 達成하자는 것이다.

筆者는 本誌에 機會있을 때마다 北韓의 食糧事情이 이 近數年동안 해마다 想像할 수 없을 만큼 惡化해 왔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일은 總聯系 在日同胞의 누구나 알고 있는 公然한 秘密이다. 이번 4.14演說은 그것을 용케도 認定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大記念碑的 建造物」이 食糧危機를 促進한다.

그렇다하더라도 經濟建設의 最重點目標에 좀더 格上하여 「쌀 즉 共産主義」라고 하는 것은 당돌한 생각이 드나, 北韓經濟에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北韓經濟에 대하여는 筆者가 本誌 218號「危機에 선 南朝鮮」에서 말하였지만, 그것을 要約하면 1972年頃 西方側으로부터 大型「프란트」를 導入, 때를 같이하여 第1次 "오일쇽크"를 利用하여 貿易代金의 未拂을 일으켰다. 그래서 75年頃부터 「프란트」의 原料나 部品의 輸入에 困

難을 가져와서 6個年計劃을 事實上 7個年 걸려서 하게 되었다. 1978年부터 第2次 7個年計劃을 始作하였지만 그 다음해인 79年에 第2次 "오일쇽크"가 始作하여 石油를 비롯하여 西方側으로부터의 輸入品의 價格이 引上되어 從來의 生産을 維持하거나 發展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많은 外資가 必要하게 되었다.

한편 北韓의 外貨獲得源(輸出品目)은 基幹産業部門의 設備가 老朽化하고, 工業製品은 어느 것이나 國際競爭力에 견딜만한 것이 없기때문에 石炭등의 地下埋藏品에 限定되고 있다. 그러나 이 分野의 設備도 老朽化되고 技術水準도 낮아서 生産이 생각한대로 올라가지 않고 있다. 4.14 演說에서 採鑛設備의 「現代化」「高速化」「自動化」를 強調. 그래서 昨年末부터 石炭, 輕工業, 水産業등의 業種에 日本에 대하여 合資會社 設立의 打診이 있었다고 하는 現狀이다.[25] 北韓의 經濟不振은 設備의 老朽化, 技術水準의 低下, 外貨不足뿐만이 아니라 한발이나 冷害등의 天災가 있었고 이에 加重하여 官僚主義등이 勞動者의 勤勞意慾을 喪失시키고 있는 것 등 여러가지 要素가 重疊되어 있다.

그래서 가장 손쉽게 外貨를 獲得할 수 있는 方法으로서는 쌀이나 옥수수를 위주로 하는 穀物의 輸出이다. 北韓은 1979年 穀物의 生産高를 900萬톤으로 發表하였다. 그 以後는 發表가 없으므로 아마도 이 水準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推定된다. 이 900萬톤은 쌀의 境遇에는 버겁질이 붙어있는

것이며 (精米로는 200萬톤으로 推定된다.) 옥수수는 따지않고 몸에 붙은 채로의 무게로 計算되고 있다. 따라서 먹을 수 있는 狀態로 하면 이것보다 적게된다. 北韓全人口의 穀物의 消費量은 4百數10萬톤으로 推定된다. 金日成은 最近 쌀을 50萬톤 輸出 (이중 蘇聯에 30萬톤) 하고 있는 것을 처음으로 認定하였다. (朝日新聞 4月1日字). 쌀以外의 옥수수등도 輸出하고 있는데 外貨獲得을 위하여 해마다 穀物輸出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다면 北韓의 그 極甚한 食糧事情을 說明할 수가 없다.

이와같은 經濟狀態에서 1980年頃부터 전에 말한대로 金日成의 生日膳物로서 凱旋門, 人民大學習堂, 主體思想塔, 牡丹峯競技場 (改修工事), 平壤第一百貨店, 野外撮影所, 스케이트링크, 천석食堂, 大遊園地 등의 建設이 始作되었다. 이것들은 어느 것이나 經濟의 再生産에 必要한 것이 아닌데도 不拘하고 방대한 資金, 資材, 勞動力이 投入되었다. 一說에 의하면 勞動力만으로 期限內에 完成을 기하기 위하여 全國에서 成分이 좋은 (党에 忠實한) 勞動者 連數10萬名을 緊急히 動員하였다고 한다. 勞動者를 差出당한 工場은 어떻게 되었을까?

昨年에 이들 建物에 資材, 資金, 勞動力을 많이 投入하였기 때문에 다른 生産部分에 차질이 생겨서 經濟가 大混亂에 빠진 것으로 筆者는 보고 있다. 直接的으로 「大記念碑的 建造物」이 全國民을 食糧危機에 몰아 넣었다고나 할 것이다. 4.14演說의 「米必論」은 以上과 같은 背景에서 생겨난 것이다.

金正日의 業績否定

이와같이 経済的 混乱과 金日成이 金正日을 副主席으로 하지 않은것이 어떠한 関係가 있는것인가?

金日成은 今年 1月1日의 新年辭에서 1981年의 経済建設의 総括部分에서 「昨年 社会主義経済建設에 큰 成果가 達成되었읍니다. 英雄的 勞動者階級은 集団的 技術革新運動과 献身的 勤勞闘争을 계속 拡大해서 工業生産을 急速히 發展시켰고, 全国 어느곳이나 많은 大記念碑的 建造物을 세웠읍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経済的分野에 具体的으로 言及한것이 「大記念碑的 建造物」뿐이었다. 이 「大記念碑的 建造物」을 指導하여 만든것이 金正日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이 建造物의 評価는 말할것도 없이 金正日의 業績의 評価이다.

그런데 4.14演説에서는 이 「大記念碑的 建造物」은 金日成이가 生日을 祝賀하려고 한 것으로써, 한마디의 말도없이 黙殺해 버렸다.

4個月間에 「大記念碑的 建造物」의 評価, 即 金正日은 実力 第2人者이고, 그 権力은 絶対的인 것이다.

莫大한 경비출혈을 強行하여 建造的建設이라고 하는 形態로서의 金正日의 権力行使는 実은 経済의 混乱을 招來하고 食糧危機를 가져온 것으로 그評価가 바뀌었다고 할것이다.

金日成의 危機意識

金正日은 後継者로서의 力量, 器量을 認定받지 못하였다는 것인가?

勿論 그것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지금 北韓이 直面하고 있는 事態는 金正日 個人의 処遇의 範囲를 훨신 넘어서는 危機에 直面하고 있는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먼저 紹介한 4.14 演説의 「米必論」이다.

지금까지 金日成이 무엇을 問題로 삼을때 「一部分派主義者」라든가 「一部封建主義者」, 「軍閥主義者」등 批判의 対象은 「一部」의 사람들에 局限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問題가 되고 있는 것은 全国民이 同等하게 食糧危機에 대한것으로 決코 「一部」가 아닌것이다.

日本内에서 現在 北韓의 事態를 金正日이 登場해서부터 食糧事情이 悪化하고, 勞動条件이 엄격해지면서 勞動者들 間에 金正日에 대한 不満이 拡大되고 있다고 보는 편이 있다. 그러나 筆者의 社会主義国家에 대한 理解에서 보면 社会主義 北韓의 勞動者는 눈에 거슬리는 管理職에 対하여 不満을 품고, 一定한 "사보타지"를 하지만 勞動党의 特定幹部의 政策을 云云할 程度로 情報를 얻을 自由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본다. 勞動者가 自己들의 生活의 고통이 金正日의 政策에 있다고 判断하고 表示할만한 状況에 있다면 오늘과 같은 北韓으로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勞動者의 不満을 政策의 可否를 判断할수 있는

立場에 있는 幹部가 認識하고 一定한 政治行動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 있을수 있는 것인지 알수없는 일이다.

지금 한가지는, 生活의 이모저모에서 부터 天災에 이르기 까지도 「天子님」 (政權의 톱)의 政治의 하심에 求하려는 傾向이 一般的으로 北韓에서는 強하다.

政治나 経済가 잘 이루어질 때에는 「天子님의 德沢」이라는 認識을 낳기때문에 이 思考方式은 金日成을 神格化하는 基盤이 된다. 그러나 最近과 같이 食糧問題가 危機的状況을 나타내게 되면 이思考方式은 一變하여 「"톱"이 나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되여 不満이 金日成에게 集中되는 것은 아닌가? 現在 昨年末 深刻한 社会不安이 가끔 持續되고 있는데, 背後에 이러한 思想風土가 있다는 것을 無視하고 생각할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問題에 대해서는 本誌의 黒田勝弘氏의 連載「서울 便」 第五回(213号所載)에 韓国에서는 「日出때부터 日没때까지 統治者의 責任」이라는 思考가 強하다고 指摘한바가 있으므로 參照바람) 以上과 같은 政治, 経済, 思想状況에 金日成이 危機感을 갖었다고 볼수 없는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 金正日의 進退라는 騒動이 아니라 金日成政權 그 自体가 危機에 말려있다고 할수 있다.

더우기 今年에 들어서서 北韓은 海外에 많은 使節団을 보내어 金日成의 生日祝賀行事에 參加要請을 하여왔다.

그러나 現実로는 社会主義国家로 부터의 參加는 전혀 없었고, 그 以外의 国家로 부터의 參加도 볼수가 없었다.

말하자면 国際的 孤立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金日成政權에 있어서는 無視할수 없는 現象일 것이다.

質的으로 다른危機

그렇다면 北韓은 지금부터 대체 어떻게 될것인가?

今後 金日成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라고 하는 것이 焦点의 하나가 되는것이 틀림없겠으나 現時点에서는 그것은 副次的인 것에 불과하며 問題는 全的으로 앞으로의 経済推移에 달려있다.

金日成이 自身의 安定된 体制를 構築한 것이 1957年3月5日의 第1次 勞動党代表者会議였다. 그 以後에도 몇번이나 困難에 逢着하였으나 그때마다 잘 넘겨져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에는 従來와는 質的으로 달라서 全国民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다고 한다.

金日成政權은 지금것 経験한바 없는 北韓事態에 直面하고 있는 것이다. 北韓의 今後의 動向에 細心한 注意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1982年4月22日記)

注(本文中에 明示한 以外의 것)

1)·2)「朝鮮通信」(朝鮮通信社, 東京) 1980年1月16日号

3) 同 1982年 2月22日号

4) 同 1980年10月16日号 姓名의 一部는 音訳

5) 同 1981年 5月30日号 金永南과 金英男은 同一人物

6) 同 9月10日号

7)·8) 同 1982年 1月 6日号

9) 同 3月15日号

10) 同 3月16日号

11) 同 1981年10月26日号

12) 同 1980年10月17日号

13) 同 1981年8月10日号, 8月18日号, 8月26日号, 9月19日号
10月7日号, 12月23日号, 1982年2月18日号
또 「北朝鮮問題」(아세아問題研究所)第54号, 「統一日報」1982年3月12日字를 參照하였다.
許錟과 許淡은 同一人物

14) 例컨데 「朝鮮時報」 1981年11月19日字 參照

15) 「朝鮮通信」 1982年4月5日号

16) 「勞動新聞」 1982年4月7日字

17)·18) 「朝鮮通信」 1982年4月16日号

19) 「月刊朝鮮資料」 1980年12月号 32頁

20) 同右 33頁

21) 「朝鮮通信」 1981年10月9日

22) 同 1982年1月6日号

23) 「月刊朝鮮資料」 1980年12月号 15頁

24) 同右 20頁

25)「日朝貿易」(日朝貿易会) 1982年2月1日号10頁

26)"유고슬라비아"에서는 代表団만이 参加(「朝鮮通信」1982年4月17日号). "루마니아"의 "쵸세스크"大統領은 祝賀行事終了後의 4月17日 「公式親善訪問」이라는 名分으로 北韓을 訪問하였다. (同4月19日号)